6.15주간

주체90(2000)년

6.15WEEKLY 제5호 (7월 19~25일)



노작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의 ≪우리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자≫

특집 남북농민통일대회

6.15공동선언실현투쟁 - 서울통일연대결성

국보법철폐 - 6.15선언이행과 국보법폐지 한마당

공개서한 - 주식회사 조선일보와 그 종사자들에게!

계획 - 파월방한반대
발췌 - 민족민주전선의 지역통일전선 구축사업
조국통일3대현장 - 90년대 통일의 대현장

6.15주간 편집부

6.15주간

6.15WEEKLY

제5호 (7.19~25)

편집부

광고

노작

특집 - 남북통일농민대회

6.15공동선언실현투쟁

단죄규탄

국보법철폐

공개서한

계획

연단

대담

시

발췌

조국통일3대헌장

통일전선론

투고를 환영합니다

무릇 출판보도물의 변혁성과 대중성은 광범한 대중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담보됩니다.

또한 ≪6.15주간≫은 6.15공동실현을 위해 투쟁하는 애국청년들이 만드는 출판물입니다.

하여 우리 편집부는 그 취지에 맞게 애독자동지들의 글을 적극 게재하고자 합니다.

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내용은 ≪6.15주간≫의 성격에 맞게 6.15공동선언실현과 관련지어 집필합니다.

– ≪6.15주간≫에 실리는 글들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6.15주간≫에 대한 의견, 비판도 좋습니다.

2. 수필, 편지, 논문, 시, 노래 등 형식은 자유입니다.

– 사진이나 그림, 악보도 환영합니다. 명의는 실명이든 가명이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3. 분량은 A4용지 반페이지 내외로 합니다.

– 간결하고 명료할수록 바람직합니다. 논문의 경우, 분량제한이 없습니다.

4. 투고요령은 ≪6.15주간≫ 지난호에 답변(리플라이)하는 방법으로 통신공간에 올립니다.

– 주지하는 바 전자우편은 공안정보기관의 추적이 용이합니다. 답변하는 통신공간은 ≪전국연합 각종자료게시판≫, ≪민주노동당 기타자료실≫, ≪민족통신 자료게시판≫입니다. 반드시 프락시서버를 활용하기 바랍니다. ≪통일여명≫ 편집국에서 제작공개한 ≪인터넷 이용시 주의사항≫을 첨부하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5. 채택된 원고는 다음호나 적절한 시기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 원문 그대로, 교정편집의 최소화가 원칙입니다.

6. 물론 원고료는 없습니다(?!).

– 6.15공동선언실현투쟁에 동참한 보람, 동지들과 글을 통해 호흡을 같이 한다는 기쁨, ≪6.15주간≫과 더불어 역사적으로 기록되는 영예가 있을 뿐입니다.

많은 애독자동지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6.15주간≫ 편집부
주체 90(2001)년 7월 15일
서울

7.27을 준비하며

7월 27일은 역사적인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일이며 한국변혁의 사령부 통일혁명당이 한국민족민주전선으로 전화발전한 날입니다.

이 뜻깊은 기념일을 맞이하며 ≪통일여명≫ 편집국은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노작선집을 발간하고자 합니다.

또한 자주시대의 향도사상이며 한민전의 지도이념인 주체사상에 대한 통신상 미공개자료들과 타국혁명자료, 타국전위조직역사서도 발굴, 입력하여 공개하고자 합니다.

≪한국민족민주전선≫이라는 제호의 인터넷 자료집도 발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통일여명≫ 편집국에서는 ≪통일여명≫을 아끼고 지지해주는 독자동지들의 성원에 보답하는 한편 참여를 추동하는 의미에서 이상의 결정에 다음사항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1. 7월 27일 등 기념일에 함께 공유하고자 하는 자료, 한글파일을 통신에 공개하면 같이 게재하겠습니다.

주체사상신봉자라면 응당 주체사상학습자료를 널리 공유하는 것을 행복으로 의무로 삼는 법입니다.

파쇼공안당국의 가혹한 사상탄압으로 많은 주체사상서적, 자료들이 유실된 조건에서 귀한 자료들을 가지고 있는 동지들은 수고스럽더라도 한글파일로 입력하여 통신에 공개해주기 바랍니다.

앞서 언급한 노작, 주체사상, 한민전, 기타 학습자료들로서 통신에 이미 공개되지 않은 자료들이면 내용과 형식에 관계없습니다.

한글파일로만 통신에 공개하면 빠른 시일내에 동지들의 학습에 편리하게 ≪통일여명≫식(하이퍼텍스트)으로 편집해서 게재하겠습니다.

2. 학습자료요청을 적극 수렴하여 입력게재하겠습니다.

학습자료요청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만 국내에 아예 출판된 적이 없거나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자료들이 많다는 점과 구하더라도 입력, 교정, 편집에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양해해 주기 바랍니다.

3. 한글파일공개와 학습자료요청은 다음의 세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해주기 바랍니다.

– 인터넷 ≪전국연합≫ 각종자료게시판
– 인터넷 ≪민주노동당≫ 기타자료실
– ≪민족통신≫ 자료게시판

동지들의 주체사상학습을 방조하는 일은 통일여명 편집국을 비롯한 우리 청년주체주의자들의 최대 행복, 최대보람입니다.

우리들은 지난날과 앞으로도 변함없이 이를 가장 중요한 과업으로 삼으며 헌신분투할 것입니다.

≪통일여명≫ 편집국
주체 90(2001)년 7월 15일
서울



구국전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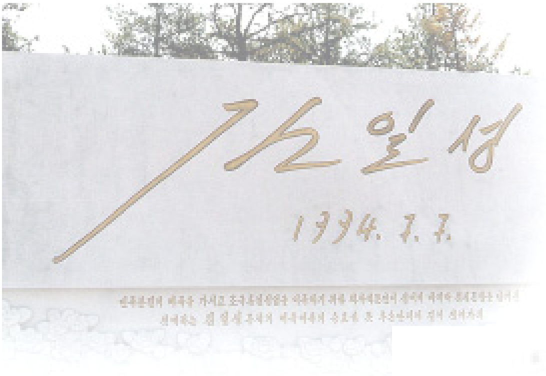
(www.ndfsk.dyn.to)



<구국전선>은 영생불후의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하는 한국민중의 애국적 전위조직인 한국민족민주전선(한민전) 중앙위원회의 기관지입니다. <구국전선>은 한국 민중의 세기적 염원인 자주,민주,통일 실현을 위하여 각계 민중 여러분들과 생사고락을 함께 하며 봉사할 것입니다.

(구국전선 사이트에 게재된 글 중에서)

구국전선 사이트에서는 인터넷 ≪구국의소리≫와 100여권의 입력된 자료, 그리고 ≪통일여명≫과 ≪6.15주간≫을 모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자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책임일꾼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북측본부성원들과 한 담화
주체80(1991)년 8월 1일

지난해에 조국해방 45돐을 계기로 조국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범민족대회가 열린데 이어 올해에 또다시 8.15를 계기로 제2차 범민족대회가 열리게 됩니다. 조국이 해방된 뜻깊은 날을 맞으며 범민족대회와 여러가지 민족공동의 통일축제를 진행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번에 예정된 행사들이 성과적으로 진행되어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고 조국통일을 앞당기는데서 중요한 계기로 되도록 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는 인위적으로 갈라진 민족의 혈맥을 다시 잇고 민족적 화합을 이룩하는 문제이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의 자주성을 실현하는 문제입니다. 다시말하여 조국통일문제는 우리 겨레의 운명에 관한 문제이며 우리 민족의 생명에 관한 문제입니다.

다 아는바와 같이 우리 나라의 분열은 우리 민족내부의 모순에 의하여 초래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외부세력에 의하여 강요된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 조선문제가 우리 민족의 자주적 요구와 의사에 배치되게 열강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처리되고 미국이 남조선을 강점한 결과 우리 나라는 북과 남으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조선의 통일이 오늘까지 실현되지 못하고 지연되고 있는 것도 외세의 간섭과 방해 책동이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나는 나라가 분열된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지난 반세기동안 어느 하루도 우리 민족이 겪고있는 불행과 재난에 대하여 잊은 적이 없으며 우리 조국의 통일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은 날이 없습니다. 조국통일의 과업을 후대들에게 물려주어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 세대에 조국을 통일하여야 합니다. 조국을 통일하는 것은 전체 조선민족의 최대의 소원이며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조국을 통일하는 것보다 더 절박한 과업은 없습니다.

우리 나라의 통일은 반드시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실현되어야 하며 그러자면 온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여야 합니다. 조국을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통일하는 문제는 우리 민족의 대단결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민족대단결은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의 근본전제이며 또한 그 본질적 내용을 이룹니다. 조국통일위업을 실현하는데서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중요한 것은 우리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는 것입니다.

어떤 운동에서든지 주체를 강화하고 주체의 역할을 높여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혁명의 가장 중요한 진리이며 장기간의 혁명투쟁과정에 신념화된 우리의 철학입니다.

조국통일의 주체는 전체 조선민족입니다. 조국통일은 우리 민족의 자주적 위업이며 조국통일을 실현할 수 있는 힘은 우리 민족의 주체적 역량입니다. 조선민족은 누구나 다 조국통일의 주인이며 따라서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여야 합니다. 우리 민족이 조국통일의 주체로서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려면 하나로 굳게 뭉쳐야 합니다. 주체의 위력은 다름아닌 단결의 위력입니다. 온 민족이 하나로 굳게 뭉쳐 통일의 주체를 강화하는 여기에 조국을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통일하기 위한 결정적 담보가 있습니다.

전체 조선민족은 민족대단결의 기치밑에 조국애와 민족자주정신에 기초하여 굳게 단결하여야 합니다.

민족은 역사적으로 형성되고 발전하여온 사람들의 공고한 집단이며 사회생활단위입니다.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나라와 민족을 단위로 하여 생활하면서 공동으로 운명을 개척하여왔습니다. 민족문제는 본질에 있어서 민족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는 문제입니다. 자주성은 사람의 생명인 동시에 나라와 민족의 생명입니다. 사람이 자주성을 잃으면 죽은 몸이나 다름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민족도 자주성을 떠나서는 그 존재와 발전에 대하여 생각할 수 없습니다.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이 실현되어야 개별적 사람들의 자주성이 실현될 수 있으며 나라와 민족이 남에게 예속되면 누구든지 망국노의 처지를 면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나라와 민족의 생명속에 민족의 한 성원으로서의 개인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으로 하여 민족은 비록 각이한 계급과 계층으로 이루어져있으나 사람들이 조국을 사랑하고 민족의 자주성을 귀중히 여기게 되며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위하여 단결하여 투쟁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조국을 사랑하고 자기 민족의 자주성을 귀중히 여기는 것은 민족의 성원으로서 공통적으로 가지게 되는 사상감정입니다.

원래 민족주의는 민족의 이익을 옹호하는 진보적인 사상으로서 발생하였습니다. 신흥부르조아지들이 민족주의기치를 들고 민족운동의 선두에 섰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민족주의가 처음부터 자본가계급의 사상이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봉건주의를 반대하는 부르조아민족운동시기에는 인민대중의 이익과 신흥부르조아지의 이익이 기본적으로 일치하였으며 따라서 민족주의는 민족공동의 이익을 반영하였습니다. 그후 자본주의가 발전하고 부르조아지가 반동적 지배계급으로 되면서 민족주의는 자본가계급의 이익을 옹호하는 사상적도구로 되었습니다. 부르조아민족주의는 진정으로 민족의 이익을 옹호하는 참다운 민족주의와는 배치되는 사상입니다. 민족의 기생충이라고 볼 수 있는 놀고먹는 자들이 민족주의를 부르짖으면서 민족주의자로 자처하는 것은 한갓 기만에 지나지 않습니다. 정신노동을 하든 육체노동을 하든 자기 민족을 위하여 유익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야 참다운 민족주의자로 될 수 있습니다.

단일민족국가인 우리 나라에 있어서 진정한 민족주의는 곧 애국주의로 됩니다. 유구한 세월 한 강토위에서 한핏줄을 이어받으며 하나의 언어를 가지고 찬란한 민족문화를 꽃피워온 우리 민족은 애국심이 강하고 자주정신이 높은 민족입니다. 우리 인민은 언제나 조국을 열렬히 사랑하였으며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지키기 위하여 줄기차게 투쟁하여왔습니다. 이것은 우리 민족의 자랑스러운 전통입니다.

우리 아버님께서는 일찍이 ≪지원≫의 사상을 내놓고 우리들을 애국주의사상, 민족자주사상으로 교양하시었습니다. 그리하여 나는 처음부터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한생을 바칠 각오를 가지고 투쟁의 길에 나섰습니다. 나의 혁명활동은 민족해방투쟁으로부터 시작되었으며 나는 민족의 주체, 혁명의 주체를 세우기 위하여 투쟁하는 과정에 우리 혁명의 지도사상인 주체사상을 창시하였습니다. 나는 오늘까지 한평생 우리 민족의 자주독립과 번영을 위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하여 투쟁하여왔습니다. 물론 나는 우리 인민의 자주성만이 아니라 세계인민들의 자주성을 다같이 옹호하며 우리 나라에서 뿐아니라 전세계 적 범위에서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와 압박을 없애기 위하여 투쟁하고있습니다. 자기의 부모형제를 사랑할줄 모르는 사람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한다는 것을 생각할 수 없는 것처럼 자기 민족의 운명에 대하여 무관심한 사람이 세계혁명에 충실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늘 말하는 것이지만 참다운 애국자만이 세계혁명에 충실한 참다운 국제주의자로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나는 공산주의자이면서 애국자인 동시에 국제주의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기본단위로 하여 인민대중의 운명이 개척되어 나가는 현 역사발전단계에서는 마땅히 민족의 주체를 확고히 세우고 민족공동의 이익과 번영을 위하여 온 민족이 단결하여 투쟁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민족의 대단결에 기초하여 조국통일을 실현할 뿐아니라 조국이 통일된 다음에도 온 민족의 통일단결된 힘에 의거하여 인민의 이상사회를 건설하고 이 땅에서 전체 인민이 다같이 끝없는 행복을 누리도록 하여야 합니다.

자주성을 민족의 생명으로 보고 온 민족이 단결하여 민족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며 민족공동의 번영을 이룩하여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주체적 민족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에서나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투쟁에서나 할 것 없이 언제나 인민들의 단합된 힘을 믿고 그에 의거하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여왔습니다. 민족적이익을 첫자리에 놓고 인민의 단결된 힘에 의거하여 투쟁한 여기에 지난 기간 혁명과 건설에서 우리가 승리한 비결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조국광복을 위한 항일혁명투쟁에서 우리가 승리한 것은 항일유격대와 인민들이 혈연적으로 연결되고 모든 반일애국역량이 굳게 단결하여 투쟁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항일혁명투쟁시기에 각계각층의 애국적 인민들을 반일민족통일전선에 묶어세워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일본제국주의와 싸웠습니다. 1936년에 조직된 조국광복회는 일제를 반대하고 나라의 독립을 지향하는 광범한 애국적 인민들을 망라한 반일민족통일전선조직이었

습니다. 조국광복회에는 공산주의자들과 민족주의자들, 노동자, 농민, 지식인, 청년학생들 그리고 양심적인 민족자본가와 종교인을 포함한 각계각층의 반일애국역량이 모두 결속되었습니다. 광범한 반일민족통일전선에 의거하여 항일혁명투쟁을 벌리는 과정에 민족적 단결의 전통이 마련되었습니다.

우리는 해방후 새 사회 건설을 위한 투쟁에서도 민족적 대단결을 이룩하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었습니다. 나는 조국을 해방한 다음 인민들앞에서 한 연설에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민주를 사랑하는 전체 인민이 하나로 굳게 단결하여 힘있는 사람은 힘으로, 지식있는 사람은 지식으로, 돈있는 사람은 돈으로 건국사업에 적극 이바지할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우리는 각계각층 인민들의 단합된 힘에 의거하여 민주주의 새 조국 건설과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쳤습니다. 우리가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목적은 착취와 압박이 없는 사회에서 전체 인민이 다같이 행복하고 보람찬 생활을 누리도록 하려는데 있습니다. 우리가 건설하는 사회주의사회는 말그대로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입니다.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라는 것은 전체 인민이 다 나라의 주인으로 되고 사회의 모든 것이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진정한 인민의 사회라는 뜻입니다.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지 않는 사회주의는 건설할 필요가 없으며 또한 인민대중의 단합을 이룩하지 않고서는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를 건설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조국을 통일하려는 것도 우리 민족의 자주성을 실현하고 민족공동의 발전과 번영을 이룩하며 전체 조선민족이 통일된 하나의 조국에서 다같이 행복하고 보람차게 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온 민족이 뜻을 합치고 하나로 단결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또 그것은 능히 실현될 수 있는 것입니다.

1948년에 평양에서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대표자연석회의가 열렸는데 우리는 당시 민족앞에 절박하게 나섰던 당면한 구국대책과 나라의 통일문제를 토의하기 위하여 이 회의를 소집하였습니다. 회의에는 남조선에서 이승만의 직계정당을 내놓고는 거의 모든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이 참가하였습니다. ≪한국독립당≫의 당수였던 김구도 회의에 참가하였습니다. 김구로 말하면 그는 해방전에 ≪상해임시정부≫에 있으면서 공산주의자들을 원쑤처럼 여기던 사람이지만 민족의 운명과 관련한 중대한 문제를 같은 민족으로서 한자리에 모여앉아 허심탄회하게 토의하자는 우리의 정당한 제의에 공감을 가지고 회의에 참가하였으며 결국 연공연합의 길에 나섰습니다. 김구는 진정한 공산주의자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잘 몰랐으나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애국자였습니다. 그는 남북연석회의에서 연설을 잘하였으며 남조선에 돌아가서도 민족의 단합과 조국통일을 위하여 투쟁하다가 미국놈들과 그 앞잡이들에 의하여 암살되었습니다. 역사적 인 4월남북연석회의는 비록 사상과 이념이 다르고 정견과 신앙에서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민족공동의 위업을 위한 투쟁에서는 누구나 단결할 수 있다는 것을 뚜렷이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민족의 자주위업을 실현하는 길에서 이룩한 민족적 단합의 전통과 경험을 살려 온 민족이 화합하고 단결하여 투쟁한다면 민족지상의 과업인 조국통일을 반드시 실현할 수 있습니다.

온 민족이 화합하고 하나로 단결한다면 그것이 곧 우리가 바라는 조국통일입니다. 조국을 통일하는데서 기본은 그 어떤 절차나 방법상의 문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온 민족의 진정한 화합과 단합을 이룩하는데 있습니다. 북과 남의 전체 인민들과 해외동포들이 마음을 하나로 합치고 그에 기초하여 민족대단결을 이룩한다면 조국통일을 실현하는데서 기본문제가 해결되게 되며 이 문제가 해결되면 다른 문제들은 자연히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에 민족적 단합을 이룩하기 위한 사업에서 상당한 전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8.15범민족대회가 열린데 이어 범민족통일음악회도 열리고 북과 남의 통일축구경기와 예술축제도 진행되었으며 올해에는 북과 남이 유일팀을 무어가지고 세계탁구선수권대회와 세계청년축구선수권대회에 공동으로 출전하였습니다. 이것은 다 우리 민족의 통일열망이 전례없이 높아지고 민족적 화합과 단결의 기운이 고조된 결과에 이루어진 것이며 여기에서 북과 남, 해외의 동포들은 다같이 기쁨을 느끼고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온 겨레의 마음이 점차 하나로 합쳐지면 결국 온 민족의 대단결이 이루어지고 조국통일이 실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남조선의 문익환목사가 이제는 우리 민족이 통일되었다, 통일은 완료형이다라고 말한 것도 이러한 뜻에서 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개 제도, 두개 정부에 기초한 연방제방식의 조국통일방안을 주장하는 것도 참다운 민족의 화합과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나라의 북과 남에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존재하고있는 조건에서 민족의 화합과 통일을 이룩하는 길은 연방제방식밖에 없습니다. 우리 나라의 현 실정에서 누가 누구를 먹는 방법으로 통일을 하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사상과 제도는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인민들이 스스로 선택하여야 할 문제입니다. 어느 일방이 타방에 사상과 제도를 강요하는 방법으로는 민족의 통일을 실현할 수 없을 뿐아니라 오히려 민족내부의 대립을 격화시키고 새로운 민족적 재난을 빚어내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민족내부의 사상과 제도의 차이는 강제적 방법으로가 아니라 민족공동의 이익에 기초하여 민족적 단결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점차 극복해나가야 합니다. 오늘 가장 절실한 민족공동의 이익은 외세의 지배와 간섭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민족의 통일을 이룩하는 것입니다. 민족내부에 사상과 제도의 차이가 있어도 하나의 민족으로서 통일을 실현할 수 있으며 민족공동의 번영을 위하여 서로 협조해나갈 수 있습니다.

조선민족은 북에 있건 남에 있건 해외에 있건 관계없이 그리고 노동자, 농민, 지식인과 청년학생, 정치인, 경제인, 종교인, 군인 할 것 없이 모두다 민족공동의 위업인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단결하여 투쟁하여야 합니다. 우리 인민이 지난 기간 새 조국 건설에서 그러하였던것처럼 북과 남, 해외에 있는 각계각층의 모든 동포들이 단결하여 힘있는 사람은 힘으로, 지식있는 사람은 지식으로, 돈있는 사람은 돈으로 조국통일위업에 이바지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와 농민, 인텔리는 민족의 기본역량입니다. 노동자, 농민, 인텔리들이 각각 자기의 특색을 살리면서 서로 협조하고 단결하면 민족의 강력한 자주적 주체를 이룰수 있으며 조국통일위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 농민들은 인텔리들과 힘을 합치고 인텔리들은 노동자, 농민들과 운명을 하나로 결부시킴으로써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주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인텔리의 역할을 과소평가하거나 그들을 편협하게 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당을 창건할 때 노동자, 농민과 함께 인텔리를 우리 당의 한 구성부분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우리 당의 마크에는 마치와 낫과 붓이 그려져있는데 이것은 우리 당을 구성하고있는 노동자, 농민, 근로인텔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해방후 새 사회 건설을 시작할 때 인텔리들을 일제에게 복무하였다고 하여 배척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애국심과 민족자주정신을 믿고 적극 포섭하였습니다. 우리는 전국각지에 흩어져있던 인텔리들을 나라의 귀중한 보배로 여기고 한사람한사람 찾아내여 새 조국 건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적극 내세워주었습니다. 우리의 인텔리들은 우리 당을 신뢰하고 따랐으며 당과 운명을 같이하여왔습니다. 그들은 새 민주조선 건설에 자기들의 힘과 재능을 다 바쳤을 뿐아니라 미제의 침략을 반대하는 조국해방전쟁에도 참가하여 잘 싸웠으며 전후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에서도 한몫 단단히 하였습니다.

오늘 남조선인텔리들도 조국통일을 위하여 잘 투쟁하고있습니다. 남조선의 청년학생들은 열렬한 애국정신과 견결한 반미자주정신을 가지고 남조선사회의 자주화와 민주화,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핵심적이며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있습니다. 자주, 민주, 조국통일을 위하여 귀중한 청춘을 서슴없이 바쳐가며 영웅적으로 싸우고있는 남조선청년학생들은 우리 민족의 자랑으로 되고있습니다.

남조선에는 노동자, 농민, 인텔리와 함께 각이한 생활경위를 가지고 각이한 조건에서 생활하고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데 이런 사람들도 소홀히 하여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민족반역자를 내놓고는 모든 사람들을 대담하게 포섭하는 원칙에서 민족적 단결을 이룩해나가야 합니다.

종교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종교를 믿는 사람들과의 사업을 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종교를 믿게 되는 것은 대체로 현실생활에서의 고통과 불행을 숙명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내세에 가서라도 행복한 생활을 누려보자는 염원으로부터 출발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교를 믿는 사람을 나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나쁜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현실생활에 대하여 환멸을 느끼도록 만드는 반인민적인 정치이며 인민들의 자주의식을 마비시키고 저들의 지배에 순종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종교를 악용하는 반동통치배들입니다. 진보적인 종교인들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화목하게 살 것을 바라고있습니다. 오늘 남조선종교인들은 외래침략자들이 우리 민족을 인공적으로 분열시켜놓고 통일을 요구하는 사람들을 총칼로 탄압하는데 대하여 반대하고있습니다. 우리는 남조선종교인들이 조국통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고있는 것을 높이 평가하여야 하며 그들과 단결하여야 합니다.

남조선에서 민족의 아들딸들인 청년들이 ≪국군≫에 들어가 미국사람들의 지휘밑에 미국의 신식민주의적지배와 민족분열정책의 도구로 복무하고있는 것은 가슴아픈 일입니다. 우리는 ≪국군≫장병들이 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의 반민족적이며 반인민적인 정체를 똑바로 꿰뚫어보도록 깨우쳐주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국군≫장병들이 자기 민족과 인민의 편에 확고히 서도록 하며 자주, 민주, 조국통일을 위한 길에서 부모형제들과 함께 나아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내가 늘 말하지만 통일은 애국이고 분열은 매국입니다. 조선민족으로서 조국통일을 바라고 조국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는 사람은 애국자이며 외세와 한짝이 되어 조국통일을 반대하고 분열을 추구하는 사람은 매국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준에서 조국통일을 지지하는 사람들과는 다 단결하여 한 대오에서 나아가야 합니다. 설사 한때는 조국통일을 반대하고 나라와 민족 앞에 죄를 지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잘못을 뉘우치고 조국통일을 위한 애국의 길에 나선다면 과거를 백지화하고 그와 단결하여야 합니다.

지난날 민족앞에 떳떳치 못하게 살아온 사람들가운데서 과거와 결별하고 민족의 단합과 조국통일을 위한 애국의 길에 나선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최덕신선생은 그런 사람들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동무들이 다 알고있는 바와 같이 최덕신선생은 지난날 남조선에서 ≪국군≫군단장도 하고 ≪외무부장관≫도 하던 사람입니다. 그는 남조선의 군부와 정계의 요직에 있으면서 친미반공의 길을 걸어왔지만 점차 집권자들의 매국적이며 반통일적인 처사에 환멸을 느끼게 되었으며 민족을 위한 참된 길을 걷기 위하여 해외에 망명하였습니다. 최덕신선생은 해외에서 망명생활을 하면서 남조선사회의 자주화, 민주화를 실현하고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애국활동을 벌렸습니다. 그는 해외에 있으면서 여러차례에 걸쳐 조국을 방문하는 과정에 어느 길이 진정한 애국애족의 길인가 하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우리 공화국이 자주, 자립, 자위의 나라로서 조선민족의 높은 긍지와 존엄을 당당히 떨치고있는 모습을 보고 감동되었으며 조국과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과거를 묻지 않고 정견과 주의주장, 신앙에 관계없이 다 포섭하여 함께 손잡고 나아가는 우리의 정당하고 일관성있는 정책과 민족대단결노선에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민족주의자로서 그리고 천도교인으로서 일생동안 동경하고 모색하던 지상천국을 조국에서 찾게 되었다고 하면서 여생을 조국과 민족을 위한 정의로운 위업에 바칠 결심을 품고 조국에 영주할 것을 청원하였습니다. 최덕신선생이 지난날에는 비록 우리와 상반되는 길을 걸어왔으나 과거와 결별하고 조국과 민족을 위한 길에서 새 출발을 하겠다고 하는 조건에서 우리는 그의 희망을 적극 지지하여주고 민족의 대단결과 조국통일을 위하여 그와 손잡고 함께 일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는 조국의 품에 안긴 후 천도교청우당 중앙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조국의 융성발전과 민족의 대단결을 위하여, 조국통일을 위하여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헌신적으로 사업하였습니다. 최덕신선생은 고대하던 조국통일의 날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으나 생의 말년에 조국통일운동대오에 서서 겨레와 함께 나아감으로써 인민들의 사랑을 받는 애국열사로서 영생할 수 있게 되었으며 내외동포들에게 민족의 화합과 대단결의 참뜻을 깨우쳐주었습니다.

민족대단결을 실현하기 위하여 북과 남, 해외의 각계각층 동포들은 사상과 제도,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공동의 이익을 앞세우고 조국통일위업에 모든 것을 복종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민족대단결을 이룩하는데서 근본원칙으로 내세우고 이 원칙을 확고히 견지해나가야 합니다.

민족의 분열로 말미암아 일시적으로 형성된 제도상의 차이나 사상과 이념의 차이보다는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통하여 형성되고 공고화된 민족의 공통성이 더 크며 개별적 계급, 계층의 이해관계보다는 하나의 민족으로서 통일을 이룩하려는 민족공동의 요구가 비할 바 없이 더 중요합니다. 개별적 계급, 계층의 사상과 이념을 옹호하고 이익을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민족공동의 위업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계급과 계층은 민족의 한 부분인 것만큼 어떤 계급과 계층도 민족공동의 이익을 떠나서는 자기의 이익을 실현할 수 없습니다. 민족이 있고서야 계급이 있을 수 있으며 민족의 이익이 보장되어야 계급의 이익도 보장될 수 있습니다.

외세에 의하여 우리 민족의 자주성이 유린당하고있는 오늘 조선민족이라면 어느 한 계급과 계층도 자기의 이해관계를 전면에 내세워 민족공동의 위업인 조국통일을 실현하는데 지장을 주어서는 안됩니다. 협소한 이해관계와 편견에 사로잡혀 계급적 이익을 민족적이익위에 올려세우거나 계급적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과 대치시키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같은 민족끼리 정견과 주의주장이 다르다고

하여 배척하거나 관권의 힘으로 탄압하며 사상과 제도가 다르다고 하여 적대시하는 것은 북과 남이 공동으로 합의한 민족대단결의 원칙에 근본적으로 배치되는 것이며 이러한 행위는 민족앞에서 허용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의 민족으로서 공통점에 기초하여 단결하지 않고 차이점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서로 배척하고 적대시한다면 우리 민족이 언제 가도 통일을 실현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북과 남, 해외 동포들사이에 접촉과 내왕을 많이 하고 대화를 적극 발전시켜야 합니다.

온 민족이 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마음을 합치고 힘을 합쳐나가자면 민족내부에 이해와 신뢰의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합니다. 나라가 분열되어 북과 남이 오래동안 격폐된 상태에 있었던 관계로 일부 사람들은 한핏줄을 이은 자기 동포들을 적으로 오해하고있으며 또 일부 사람들은 민족의 단합을 바라면서도 신뢰가 부족한데로부터 같은 동포들과 손잡고 나아가기를 주저하고 있습니다. 민족내부에 존재하는 이러한 오해와 불신을 가시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이룩하려면 자유로이 내왕하면서 서로 접촉하여야 하며 대화를 많이 하여야 합니다.

자유로운 내왕과 접촉, 폭넓은 대화를 실현하는데서 중요한 것은 분단의 장벽을 허물고 온갖 정치적, 법률적 장애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분단의 장벽을 허물고 북과 남사이의 자유내왕과 전면개방을 실현할데 대한 제안을 내놓고 그 실현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고있습니다. 문제는 남조선당국이 민족분열의 장벽을 허물고 북과 남, 해외 동포들사이의 자유내왕과 접촉, 대화를 가로막고있는 온갖 장애를 제거하는데 있습니다. 오늘 북과 남사이의 자유내왕과 접촉을 실현하고 대화를 발전시키는데서 남조선의 ≪국가보안법≫이 큰 장애로 되고있습니다. 남조선에서는 북을 방문하였거나 해외에서 북반부사람들과 마주앉아 통일논의를 한 사람들을 ≪국가보안법≫에 걸어 처형하고있습니다. 70고령의 문익환목사와 나어린 임수경학생을 비롯한 방북인사들과 수많은 통일운동자들이 지금 이 법의 희생물이 되어 감옥에 갇혀있습니다. 이러한 악법을 그대로 두고서는 북과 남사이에 자유로운 내왕과 접촉이 실현될 수 없으며 대화도 자유롭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국가보안법≫은 하루빨리 철폐되어야 합니다.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전민족적 인 연대성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민족의 대단결은 말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민족의 대단결은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뜻을 합치고 힘을 합쳐 공동행동을 벌여나가는 과정에 이루어지고 공고화되게 됩니다. 북과 남, 해외의 모든 정당, 단체들과 각계각층 동포들은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서로 지지성원하면서 공동보조를 취하여야 합니다.

여기에서 선차적으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반통일세력의 민족분열영구화책동과 새 전쟁 도발책동을 저지파탄시키는 것입니다. 북과 남, 해외 동포들은 조국통일을 가로막는 반통일세력을 고립약화시키고 그들의 분열주의책동을 짓부셔버리기 위하여 여러가지 형태의 공동투쟁을 적극 벌여나가야 합니다. 남조선에 있는 수만명의 미국군대와 1,000여개의 각종 핵무기는 조선반도의 정세를 긴장시키고 핵전쟁위험을 조성하는 근원으로 되고있습니다. 우리는 남조선에서 미군과 핵무기를 하루빨리 철거시킴으로써 우리 민족의 생존을 위협하는 핵전쟁위험을 제거하여야 하며 조선반도의 평화를 위한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북과 남, 해외의 모든 동포들은 남조선에서 미국군대와 핵무기를 철거시키고 조선반도를 비핵지대,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거족적인 투쟁을 벌여야 합니다.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조국통일을 위하여 투쟁하는 북과 남, 해외의 모든 정당, 단체와 조직들, 각계각층 동포들의 조직적인 연합을 실현하여야 합니다.

통일애국에 뜻을 같이하는 모든 동포들이 연합하여 하나의 대오에 조직적으로 결속될 때 비로소 공고한 민족적 단결이 이루어질 수 있고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행동의 통일성과 일치성이 보장될 수 있습니다.

온 민족의 조직적인 단합을 실현하려면 북과 남, 해외의 각계각층 동포들이 다같이 자원적으로 망라될 수 있는 조직이 있어야 합니다. 지난해 범민족대회의 결의에 따라 출범한 조국통일범민족연합이 그러한 조직으로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은 나라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북과 남, 해외의 애국적인 단체와 조직들, 각계각층 인사들의 공동의 노력에 의하여 결성되였습니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은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에 기초하여 조국통일을 실현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며 북과 남, 해외 동포들의 공동의 의사를 대변하는 애국적인 통일운동조직입니다. 민족의 대단결을 실현하고 조국통일을 앞당기는데서 조국통일범민족연합이 맡고있는 임무와 책임이 무겁습니다. 앞으로 조국통일범민족연합은 동포들속에서 대오를 끊임없이 확대강화하고 조국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여러가지 활동을 적극 벌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조국통일의 앞길에는 아직 많은 장애와 난관이 가로놓여있으나 우리는 조국통일의 밝은 전망을 확신성있게 내다보고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통일기운은 전례없이 고조되고있습니다. 북과 남, 해외동포들은 1990년대에 기어이 조국통일을 이룩할 각오를 가지고 통일운동에 힘차게 떨쳐나서고 있습니다. 오늘에 와서 그 누구도 조국을 통일하려는 우리 인민의 의지를 꺾을 수 없으며 그 어떤 힘도 조국통일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민족의 거세찬 흐름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 인민은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통일의 앞길에 가로놓인 장애와 난관을 제거하고 나라의 통일을 반드시 실현하고야 말 것입니다.

조국이 통일되면 우리 민족은 존엄있고 힘있는 민족으로 될 것이며 우리 나라는 7,000만이상의 인구와 찬란한 민족문화와 위력한 경제를 가진 자주독립국가로 세계무대에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근면하고 슬기로운 민족이며 우리 나라는 아름답고 살기좋은 삼천리금수강산입니다. 온 겨레가 하나로 단결되고 조국통일이 실현되면 우리는 두려울 것도 부러울 것도 없습니다. 우리 인민은 조선민족의 슬기와 위용을 자랑스럽게 떨치게 될 것이며 그 누구도 우리 민족의 자주권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할 것입니다. 조국이 통일된 다음 온 민족이 힘과 지혜를 합쳐 경제와 문화를 발전시킨다면 우리 나라는 더욱 부강하고 문명한 나라로 될 것이며 평화와 번영을 위한 아세아와 세계 인민들의 공동위업에 더 잘 이바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조선민족으로서 조국통일을 위하여 헌신하는 것은 가장 영예롭고 보람있는 일입니다. 조국통일의 성스러운 위업에 공헌한 사람들은 민족의 사랑과 존경을 받게 될 것이며 통일된 조국의 이름으로 높이 평가될 것입니다.

나는 동무들이 조국통일의 전초선에서 조국과 민족이 맡겨준 영예로운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리라고 믿습니다.

자주통일의 실현을 위해 대단결하자

금강산에서 6.15공동선언관철을 위한 북남농민통일대회

대회는 북남농민들의 단합된 힘을 과시하였다

(고성발 김삼영, 강이룩기자) 6.15공동선언관철을 위한 북남농민통일대회가 18일부터 19일에 걸쳐 금강산에서 진행되였다.

대회에는 북측의 조선농업근로자동맹에서 약 800명, 남측의 전국농민회총련맹, 전국녀성농민회총련맹에서 약 650명의 대표들이 참가하였다.



또한 대회에는 남측에서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6.15공동선언실현과 ≪한≫반도평화를 위한 통일련대, 7대종단, 민주로총 등의 단체대표들이 초청되였다.

민족의 분렬이래 북과 남의 농민들이 회합을 가지는것은 처음이며 민간급교류행사가 특히는 6.15공동선언이후 여러번 있었는바 참가인원수에 있어서는 사상 최대규모이다.

대회에서 북과 남의 농민들은 화해와 단합의 정신을 힘 있게 과시, 농민들도 6.15공동선언의 기치 들고 조국통일을 실현해 나갈 당당한 주력군임을 선포하였다.

18일 오전 9시 농악무대렬의 나팔, 북, 장고소리가 울려퍼지는 가운데 북과 남의 농민대표들이 손에 손을 잡고 함께 회장(김정숙휴양소 앞마당)에 입장하였다.

대회는 통일기 게양으로 시작되였다.

대회에서는 먼저 축하연설들이 있었다.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중앙위원회 승상섭위원장은 농민들의 념원은 조국통일을 하루빨리 이룩하고 한지맥으로 잇닿은 통일된 3천리금수강산에서 마음껏 농사 지으며 행복하게 살아 가는것이라고 하면서 북과 남의 농민들이 6.15공동선언을 관철하기 위한 성스러운 위업에 구슬땀을 바쳐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전국농민회총련맹 정광훈의장은 아직도 남쪽의 현실은 외세의 간섭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며 미국은 쌀마저도 수입을 강요하고 우리 민족이 통일의 길로 나서는것을 가로막고 있다고 하면서 우리 민족끼리 힘 합쳐 자주적으로 통일하고 농민들이 앞장서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민족통일국가를 만들어 나가자고 호소하였다.

전국녀성농민회 김순옥회장은 남과 북이 힘 합쳐 민족의 살길을 찾기 위해서는 통일의 발걸음을 막는 외세와 악법을 우선 걷어 내야 한다고 하면서 오늘 우리의 력사적인 만남이 그 불씨가 되여 줄것이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통일연단이 있었다. 토론자들은 조국통일의 리정표인 6.15공동선언을 관철하기 위한 겨레의 통일대진군을 농민들이 단합하여 적극 추동할것을 열렬히 토론하였다.

대회에서는 북남예술인들의 축하공연, 민속체육 및 오락경기가 있었으며 참가자들은 19일 구룡연을 탐승하였다.

민족적색채를 짙게 띤 행사들에서 농민들의 뜨거운 민족애와 통일념원이 굽이쳤다.

한편 19일에는 6.15공동선언관철을 위한 북남농민통일대회 공동보도문 (관련기사) 이 발표되였다.



북남농민통일대회 폐막

(고성 7월 19일발 조선중앙통신)

6.15공동선언관철을 위한 북남농민통일대회가 19일에 폐막되였다.

폐막식에서는 6.15공동선언을 철저히 리행하여 통일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풀어 나가려는 북과 남의 농민대표들의 확고한 립장이 표명되였다.

남조선의 농민회총련맹 정광훈의장은 이번 대회를 통하여 우리 민족이 하나임을 확인하였다고 하면서 자기들은 통일을 가로 막는 그 어떤 세력에도 굴하지 않을것이며 ≪국가보안법≫철페와 미군철수운동을 지속적으로 벌려 나갈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는 조국의 통일은 멀지 않았다고 하면서 남북농민들이 6.15공동선언리행에 앞장 설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남조선의 녀성농민회총련합 김순옥회장은 이번 대회과정에 오래동안 헤여 져 살아야 했던 우리가 절대로 떨어 져서는 안될 한피줄, 한형제이라는것을 가슴깊이 깨닫게 되였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조국통일을 가로 막는 외세를 몰아 내고 악법을 철페하는것이 선차적으로 해결되여야 할 과제라고 하면서 이 투쟁에 남조선녀성농민들도 함께 떨쳐 나설 의지를 확인하고 돌아 가게 된다고 말하였다.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중앙위원회 승상섭위원장은 이번 대회는 북남농민들의 열렬한 민족애와 통일의지가 활화산처럼 타오른 화해와 단합, 통일의 광장이였다고 하면서 북과 남의 농민들이 6.15공동선언의 기치를 높이 들고 온 겨레와 함께 자주적통일의 길을 더욱 힘차게 열어 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대회에서는 6.15공동선언관철을 위한 북남농민통일대회 공동보도문이 발표되였다.

대회폐막이 선언되자 북남농민대표들은 ≪민족대단결가≫의 노래를 부르고 통일구호들을 힘차게 웨치면서 공동선언의 리행을 위해 힘과 지혜를 바치고 서로 련대련합하여 온 민족의 단합된 힘을 과시할 굳은 결의를 표명하였다.

대회장에 통일아 통일아노래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대형통일기발이 서서히 내리워 졌다.

이에 앞서 북과 남의 농민대표들은 금강산의 구룡연을 탐승하였다.

대표들은 신계동과 옥류동을 거쳐 구룡동으로 오르면서 금강문, 련주담 등에서 력사유적유물과 명소들에 대한 해설을 주의 깊게 듣고 금강산에 깃든 수많은 전설들에 대한 이야기로 꽃을 피웠다.

우리 나라 3대명폭의 하나인 구룡폭포를 감동속에 바라보며 대표들은 온 민족이 모여 와 금강산을 마음껏 유람할 그날을 그려 보았다.

대회가 끝난 다음 북의 농민대표들은 북남농민들사이의 련대와 단합을 도모하고 조국통일운동사에 또 하나의 빛나는 장을 새기고 떠나가는 남의 농민대표들을 ≪조국통일≫, ≪민족자주≫ 등의 구호를 부르며 뜨거운 동포애의 정으로 환송하였다.











6.15공동선언관철을 위한 북남농민통일대회 공동보도문

력사적인 6.15－8.15민족통일촉진운동행사의 일환으로 7월 18일과 19일 민족의 명산 금강산에서 북측의 조선농업근로자동맹과 남측의 ≪전국농민회총련맹≫, ≪전국녀성농민회총련합≫은 ≪6.15공동선언관철을 위한 북남농민통일대회≫를 진행하였다.

대회에서는 력사적인 6.15공동선언을 조국통일의 리정표로 확고히 틀어 쥐고 조국통일위업실현에 적극 떨쳐 나서며 외세의 전쟁대결정책과 일본의 력사외곡책동을 반대하는 투쟁을 강력히 벌려 나갈데 대한 결의가 확인되였다.

분렬력사상 처음으로 진행된 농민통일대회는 북과 남의 농민들의 단합된 힘을 크게 과시하였으며 농민들도 로동자들과 함께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실현의 당당한 주력군임을 내외에 선포하였다.

북과 남의 농민들은 6.15공동선언을 리행하고 관철하는데서 언제나 마음도 하나 힘도 하나로 합치며 공동행동을 적극 벌려 나갈 확고한 결의와 의지를 다지였다.

이와 관련하여 6.15공동선언리행을 위한 북남농민들의 통일련대조직을 내오는 문제도 협의추진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북과 남의 농민들은 새 세기 첫 광복절인 올해 8.15에 평양에서 민족통일대축전이 전 민족적범위에서 성과적으로 진행되여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위업실현에 적극 기여하게 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6.15공동선언관철을 위한 북남농민통일대회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여는 해 7월 19일
금강산



≪여성 농민, 고 힘 아끼시라요≫
남북 농민 1천3백명 통일 한마음

≪이모저모≫씨름 · 줄다리기 등 민속체육및 오락대회

전대기련 특별취재 공기단 김효숙 기자 sample0410@hanmail.net

2001-07-20 13:04:00 ⓒ 2001 유뉴스

18일 오후 3시, 김정숙 휴양소에서는 남측의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여농)과 북측의 조선농업근로자동맹(농근맹)이 공동주최한 ≪6.15공동선언 관철을 위한 남북(북남)농민통일대회(남북(북남)농민통일대회≫)의 한 행사인 ≪민속 체육 및 유희 오락 경기≫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는 남측의 600여명과 북측의 700여명의 농민들이 고루 섞여 ≪자주≫와 ≪단결≫팀으로 편을 나눠 씨름, 줄넘기 등 서로간의 힘을 겨뤘다. 하지만 경기보다 더 재미있는 것은 각 팀의 화려한 응원 경쟁이었다.

경기 결과를 불문하고 서로간의 화합의 장이 돼 준 이 행사의 이모저모를 엿보았다.



황소 주인은 누구? – 씨름 경기

각 도 대표들이 나와 한 팀이 10명으로 구성된 ≪자주≫와 ≪단결≫팀.

첫 경기라 긴장한 표정이 역력하네. 어떤 농민은 윗도리는 어데로 가고 아예 맨몸으로 덤비는데. 바닥이 딱딱해 아프지 않을까 걱정이네만.

서로가 ≪자네는 누가 편이여?≫라고 물으며 내편, 네편으로 갈라 보지면서 덩달아 취재하던 북측 여 사진기자도 대뜸 ≪나는 중립이에요≫라고 선수치며 말하네. 다들 한 몸매 자랑하며 나서는 선수들 속에 자주팀 2번째 선수로 나선 북측 젊은 청년. 어째 몸이 부실해 보이건만 힘 좀 써볼라요?

으메 알고 보니 힘 하나는 천하장사구먼.

으랏차차 넘기는데 이 청년 어째 초보는 아닌 듯. 제 몸보다 훨씬 큰 청년을 한번에 쓰러뜨리는데.

경기가 진행되는 도중 꽃목걸이 목에 걸고 나타난 황소. 다들 한번 힐끔 보지만 영광의 주인이 되는 길은 그리 쉽지만은 않을 터.

허나 무엇보다 흥미진진함을 더해 주는 것은 입담 좋은 해설가의 말.

≪숨소리 마저 죽이고 샅바를 잡아라≫

≪남자들이 경기한다고 처녀들이 무심한가≫

≪힘이 센가, 꾀가 센가≫

재미없는 말이더라도 남과 북이 하나되니 실소를 터트리는구나.

엎치락 뒤치락. 결국 자주 팀의 승리. 알고 보니 부실한 청년의 공훈이 컸나 보구.

황소 받으러 당당히 나오는 청년. 참으로 의젓하구나.

사람 ≪말≫ 나섰다네 – 윷놀이

세상에나 만상에나 이렇게 큰 윷을 본적 있나, 아니 이렇게 큰 말을 본적 있나?

남과 북의 여성농민들이 곱게 한복으로 갈아입고 서로 하나 돼 윷

≪어찌 이리 박자가 안 맞는고?≫

하나, 둘, 셋, 숨을 고르고 줄에 뛰어 들었건만 걸리는 것은 매한가지. 둘이 함께 하는 것이 이리도 어려운갑소.

남과 북의 농민이 손을 잡고 한번 뛰어 봤건만 어찌 한번의 만남으로는 부족한 건가.

다음, 다음번에 또 다시 만나면 눈 감고도 잘 뛸 수 있겠지.

줄은 못 넘더라도 결승점까지 힘차게 달려라.

≪자~자. 그래도 잡은 손 놓지 말고 어서 빨리 뛰기나 합세다≫

줄 끊어져 경기 안 되는 거 처음 봤네 – 밧줄 당기기

이번 경기 무더기로 몰려 와서 하는 경기. 한번 질펀하게 놀아 보세.

서로 줄 싸움부터 팽팽한데. 누가 이길지.

≪가위, 바위, 보≫ 이기는 사람이 자리를 먼저 정하지만 뭐 그리 중요하리요.

≪영차, 영차 이겨라≫, ≪당겨라, 당겨≫

한판 끝나고 다음 한번 더 해 보자.

≪한번 더 힘을 줘봐 젖 먹던 힘까지.≫

≪철!썩!≫

어찌나 힘을 줬던지 정 중앙에서 줄이 두 동강 나부렀스. 그 튼튼한 밧줄이 말일세.

밧줄 당기기하다 이럴 수도 있구나 . 다들 웃을 수밖에.

결국 밑 보는 것은 심사위원단. 두 팀 무승부인만큼 상품도 둘 다 줘야하니

선수단은 웃음꽃, 심사위원단은 울상일세.



≪여성 농민, 고 힘 아끼시라요≫ – 사람 및 물건 찾아 달리기

≪찾으시오, 찾으시오. 사람도 찾고 물건도 찾으시오≫
중간 지점까지 와 돌 밑에 있는 지시명을 보고 찾아다니는 사람 및 물건 찾아 달리기 경기.
치마 입은 여성도 남성 손에 이끌려 숨을 헐떡거리며 달려오고, 나이 든 어르신도 펄펄 달려오네.

≪이겨라, 이겨≫,
≪여기 여기 있어. 이거 가져 가≫
애 타는 농민들 먼저 찾아주려고 안달이 났네.
저기 오는 저 사람 길다란 깃발 손에 들고 오는데 여성인지 남성인지 힘이 장세로세. 가까이 보니 여성농민. 무슨 힘이 그리 센지 힘도 아끼시라요.

경기 종료. 누가 이긴 것이 중요하리요. 그건 독자의 판단에 맡기겠소.
좋은 게 좋다며 다들 웃음만 가득하다.
아쉬운 게 하나 있다면 1000여명 인원 중 몇 명만 경기에 참여해 뒤에서 까치발하고 목 쭉 빼고 구경한 이들. 그래도 응원단의 흥겨운 춤으로 그들 또한 심심하지만은 않았을게요.

오늘의 마지막 대동 한마당.
어깨에 서로 손을 얹고 달려보세. 서로 뒤로 보고 웃고, 앞으로 보고. 이렇게 좋은 것을 왜 이제서야 하는지 모르겠소.
오늘 피곤 쫘악 풀고 내일 또 보세
≪잘 가슈.≫









금강산에 휘날린 전여농의 깃발



7월 18일, 세계적인 명산 금강산에서는 반세기 분단사상 처음으로 남과 북의 농민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통일행사가 열렸다.

5.1절남북노동자통일대회, 민족통일대토론회에 이어 1천여 남북농민들이 참가한 이번 통일대회는 우리 민족의 통일운동사에 큰획을 그은 뜻깊은 회합이었다.

나는 남북농민통일대회의 장엄한 화폭을 지켜보며 또 하나의 감격적인 모습에 가슴 설레었다. 뜻깊은 남북농민통일대회 개막식에서 당당히 등장한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회(전여농)의 깃발, 이것은 이남 여성농민운동의 새로운 전환을 예고하는 자랑찬 깃발이었다.

70년대 후반 가톨릭여성농민회를 시작으로 여성농민들의 정치, 경제, 사회적 지위뿐 아니라 빈곤과 농촌사회의 가부장적 악습, 과중한 노동 등 2중 3중 겹쌓인 억압의 사슬을 깨기 위해 떨쳐나선 여성농민. 89년 전국여성농민위원회를 거쳐 92년 전여농이라는 자기조직을 결성하고 이 땅의 자주, 민주, 통일과 여성농민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투쟁해온 우리 여성농민. 그들의 자랑찬 깃발이 드디어 남북농민들의 거족적 통일행사에 기세차게 휘날리게 된 것이다.

전여농의 김순옥회장은 통일대회 개막연설에서 ≪지난 50여년의 세월동안 억지로 갈라진채 우리 농업은 소위 경제발전의 희생양으로 억울하게 빼앗기고 무시당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6.15공동선언 이후 북측농민형제들과의 만남을 통해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남북농업의 균형발전으로 민족의 생명을 지켜낼 통일농업의 실현인 것입니다. 남과 북이 힘을 합쳐 민족의 살길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외세와 악법을 걷어내고 그 자리에 우리의 힘으로 한라에서 백두까지 통일의 불길을 일으킬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역사적인 만남이 그 불씨가 되어줄 것입니다.≫라고 격조높이 이야기하였다.

이번 남북농민통일대회는 조국통일에 농민의 살길이 있고, 여성농민의 살길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하고 6.15공동선언이행관철만이 우리 여성농민이 갈길임을 더욱 깊이 각인한 자리이다.

금강산에 휘날린 전여농의 깃발은 역사적인 6.15남북공동선언의 이행으로 통일운동의 중심에 서겠다는, 그리고 민족의 생명줄인 농업을 책임지겠다는 이남 여성농민들의 뜨거운 결의의 깃발, 희망의 깃발인 것이다.

한 여성운동가 강설금
2001. 7월 22일



서울통일연대 결성

송정미 기자(jmsong@tongilnews.com)
(통일뉴스 2001-07-20)

서울지역 80여개 단체가 함께 하는 ≪6.15공동선언 실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서울통일연대≫가 공식 출범했다.

서울통일연대는 19일 오후 7시 동국대 학생식당에서 100여명의 소속회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이중원(서울통일연대) 집행위원장의 사회로 결성식이 진행됐다.

서울통일연대의 상임대표를 맡은 이천재(서울연합) 상임의장은 대회사를 통해 ≪지금은 대중역량을 어떻게 건설할 것인가의 대명제에 부딪쳤다≫며 ≪이전의 모든 역사는 이후의 대중역량의 건설을 위해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6.15공동선언에 의해 단결하자는 것이 낮은 수준의 운동처럼 생각될 수 있지만 이 운동이 5년, 10년 후의 역사와 미래를 내다보는 혜안을 가진 일꾼들에 의해서만이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축사에 나선 통일연대 이종린 상임대표는 ≪빠른 시일내에 통일의 성과를 가슴에 안고 조국통일의 감격을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서울통일연대 결성을 축하했다.

한편, 통일광장의 임방규씨는 ≪분단에서 화해로 가는 시점에서, 통일운동을 함께하는 사람들 내부의 감정과 견해의 차이를 해소하고 한 단계 넘어서야 하지 않느냐?≫고 질문을 던지고는 ≪조국에 이바지하고 통일을 앞당길 것을 생각하면 이 모든 장벽을 극복할 수 있고 대단결도 이뤄낼 수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최선영(서울지역청년단체협의회) 부의장은 정치연설을 통해 ≪조국통일의 원칙과 방법 등을 살펴보고 현재 우리가 뭘 할 것인가≫에 대해 말했다. 그는 또한 말이 아닌 실천을 위한 자성으로 열심히 투쟁하자고 말했다.

끝으로 김규철(서울통일연대) 상임대표는 결성선언문을 통해 ≪6.15공동선언을 1천만 저 서울시민의 것으로 펼쳐내기 위한 다종다양한 사업들을 전개하는 가운데 과거불문의 원칙아래 6.15공동선언에 동의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정부, 정당을 포함한 제 세력들과 함께 연대연합의 기치를 세워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결성식은 6.15공동선언에 입각한 민족대단결의 원칙을 강조하며 현재의 모습을 자성하고 이를 계기로 열심히 노력하자는 결의를 모아내는 자리였다.

이중원 집행위원장은 기자와의 인터뷰를 통 해 ≪조국통일의 대강령이라 할 수 있는 6.15공동선언을 실현하는 길이 조국통일을 앞당기는 것≫이라며 ≪6.15공동선언 실현을 전 서울시민의 사업으로 하고 이를 지지하는 각계각층이 다 함께 할 수 있도록 추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중원 집행위원장은 서울통일연대의 이후 사업으로 다양한 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나 △단일기 걸기(공공기관, 각 단체, 거리 등에 8.1~8.15일까지) △통일한마당(지구별 통일한마당포함) △6.15공동선언 실천단 구성(300~400여명 예상, 지역별 순회후 소규모 문화행사)에 중점을 둘 것이고 이 사업들을 6.15 민족공동행사 추진본부에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5월부터 논의를 거쳐 7월 4일 준비위를 구성하고 19일 정식 출범한 서울통일연대는 이후 6.15민족공동행사 추진본부와의 협의를 마치는 대로 7월 31일경 6.15민족공동행사 서울 추진본부를 결성할 계획이다.



서울통일연대가 다양한 의견과 방법의 차이를 극복하고 결성 취지대로 대단결의 장이 될 것인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노동계 통일운동 열기 ≪후끈≫

민주노총, 8백여명 매향리서 통일일꾼대회

이준하/한옥주 기자 sub@unews.co.kr
유뉴스 2001-07-16 12:06:00

민간통일운동의 지형이 바뀌고 있다.

80년대 후반 광범위한 학생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면서 통일운동의 선도적 역할을 해 왔던 대학생들은 매년 8월 개최된 ≪범민족대회≫를 비롯한 각종 통일행사의 중심동력이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통일운동의 중심동력에 변화가 일기 시작했다. 바로 노동자들이다.

지난해 8월 진행된 ≪통일대축전≫행사에서는 민주노총이 통일운동에 조직적으로 나서면서 2만명에 가까운 노동자들이 통일행사에 참여했다. 실제로 민주노총은 99년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를 개최한데 이어 올해는 남북노동자 5·1통일대회를 열어 역사상 최대규모인 5백명이 방북하기도 했다. 특히 남북노동자들이 ≪조국통일을 위한 남북(북남)노동자회(통노회)≫라는 남북노동자들의 단일한 단체를 결성한 점은 90년 ≪조국통일범민족연합≫ 결성이후 통일운동역사에서 가장 괄목할 만한 성과로 꼽히고 있다.

지난 7월 14일(토) 경기도 화성군 수촌초등학교에서 열린 ≪전국노동자 통일일꾼 전진대회≫는 노동계가 민간통일운동의 중심세력으로 떠오르고 있음을 보여준 행사였다. 또 최근 노동계안에서의 후끈 달아오른 통일운동 열기를 가늠하는 장이기도 했다.

민주노총 통일위원회 소속 간부들과 조합원 8백여명이 모인 이날 행사에서는 ≪전국노동자 통일실천단 발족식≫이 진행됐다. 매년 8월초 15박 16일동안 전국을 순례하며 대국민 ≪통일≫ 홍보사업을 펼쳐온 대학생들의 ≪통일선봉대≫와 같은 노동자들의 ≪통일선봉대≫ 발족식인 셈이다. 이규재 통일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임금문제와 생존권적 문제에 머물렀던 노동운동이 이제 엄연히 민족적 과제를 풀어나가는 통일운동의 중심에 서 있다.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현장과 생활 곳곳에서 통일의 바람을 불러일으키자≫라고 당부했다.

임택근 부산본부 통일위원회 부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발족식에서는 제2기 민주노총 노동자통일선봉대 결의, 민주노총 산하 지역·연맹별 통일위원장과 통일실천단 소개 및 결의, 결의문 낭독 등의 순서가 진행됐다.

이에 앞서 진행된 ≪노동자 통일일꾼 전진대회 문화제≫에는 각 지역 통일실천단이 3개월 전부터 준비한 문화공연이 진행됐다. 안산지역노래패 ≪소나무≫, 기아·현대자동차 연합 노래패, 평택지역 실천단의 ≪봉숭아학당≫, 안산지역 통일실천단의 ≪통일극 성춘향≫, 연합풍물패 ≪터벌림≫의 풍물대동놀이 등이 무대위에 올려졌다.

비가 내리는 가운데도 강행된 이날 행사에서는 실질적으로 행사를 준비하고 주관한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의 ≪경기지역 노동자통일실천단 발대식≫이 사전행사로 진행됐다. 개회사에 나선 김영수 경기도본부장은 ≪현장의 문제를 넘어선 조국과 민족의 문제를 제대로 바라보고 투쟁할 때 현장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라며 ≪단결해서 반미통일투쟁에 나서자≫라고 호소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규철(범민련 남측본부)부의장, 장기수 임방규(통일광장) 대표 등 원로 통일인사들과 허영구(민주노총 수석 부위원장), 강승규(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의장)씨 등의 노동계 지도급 인사들이 참석했다.

행사를 마친 노동자들은 다음날 15일(일) 매향리로 이동 ≪매향리 미군폭격장 폐쇄, MD 저지, 사대매국 김대중정권 퇴진 민주노총 결의대회≫와 ≪매향리 폭격장 폐쇄 제8차 범국민대회≫를 진행했다.

충청지역 대학생 대표자 모임이 17일 진행되었습니다!

무더운 날씨 굵은 땀방울을 흘리며 민족통일촉진운동 기간 단위마다 전투계획을 세우고 힘차게 모범을 일궈가시는 백만 청춘들 그 모습이 너무도 자랑스럽습니다.

정세는 청년학생들에게 조국통일의 주체 역량을 비약적으로 확대발전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미제의 침략과 반통일세력의 준동으로 점철된 오욕의 사슬을 두손으로 끊어버리고 자주적 평화통일의 길로 내달려 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운동은 대중 스스로의 운동으로 전환되어져 그야말로 나와 우리의 운명을 개척하는 그 길로 한결같이 일떠 설 것이 요구되어지고 있습니다.

저마다 6.15남북공동선언의 기치 드높이 통크게 단결해 들어가고 투쟁을 전개하려 계획하고 실천하고 있을 줄 압니다.

충청총련 역시 6.15남북공동선언 기치높이 충청지역 대학생들과 통크게 단결하고, 기간 의사소통과 교류가 미진했던 부분을 극복하고 이번 계기와 조건을 잘 살려 충청지역의 학생운동의 질적, 양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차원으로 충청지역 대학생들의 대표자 모임은 제기되었고 진행이 되었습니다.

17일 충남대학교에서 진행된 충청지역 대학생 대표자의 모임은 많은 학교, 단체 대표자 분들이 오시진 못하셨습니다.

공주대, 한밭대, 충남대, 순천향대, 전대기련 대전충남 지부장님이 참석하신 가운데 1차 대표자 모임은 진행이 되었습니다.

먼저 6.15남북공동선언실현을위한충청지역대학생공동추진위원회를 건설하려는 취지와 목적에 대해서 논의를 가져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밭대, 공주대 총학생회장님께서는 6.15남북공동선언에 합의하고 그것을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인식은 하나 정작 방중에 학우들과 그것을 풀어가는데 있어서 실제 어려움이 나선다라며 고민을 토로하셨고 더불어 충청지역의 모든 대학과 단체를 묶어내려면 이번 계기와 조건을 잘 살려 의사소통을 빠르고 일상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체계를 만들고 공동의 투쟁과 사업관련하여 모색하기 위한 목적을 더욱 전면에 내세워 이 모임을 발전시키는 것이 더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한밭대 총학생회장님 경우는 기간 ≪나는 스스로가 운동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주변에서는 내가 어떠한 조직안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비운동권으로 보는 경향이 있더라. 그래서 어떤 단체나 조직에 가입되지 않은 학교들을 중심으로 열린학생회라는 단체를 만들었고 거기 대표로 있다며 취지와 목적을 합의하는 바 다음 모임때 가입되어 있는 학교 총학생회장님들과 모두 함께 오겠다≫고 말씀하시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실제 열린 학생회에 함께 하고 있는 학교를 들어보니 목원대, 배재대, 한나대, 중부대 등등 대전의 대부분의 학교가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공주대 총학생회장님 같은 경우도 국립대 발전계획과 관련해서 2학기때 총력 투쟁을 전개하려고 생각중이다. 이번 기회를 통해 충청지역의 대학들이 힘을 합해 공동의 투쟁사안을 가지고 힘차게 단결해서 투쟁할 수 있는 계기와 조건을 만들어보자면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전대기련 지부장님께서도 상반기 충청지역 대표자분들의 모임이 일상적으로 가져갔더라면 서로 상황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그에 바탕으로 준비를 가져가서 더 큰 성과가 있을 수 있었는데 아쉽다며 이 모임을 정기적으로 더욱 발전적으로 가져 갈 것에 대한 요구도 해 오셨습니다.

다음으로 민족통일 촉진운동기간 함께 할 수 있는 사업과 투쟁이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를 했습니다.

여기서 남북 청년학생 통일대회와 대전충남 청년학생 통일축전, 그리고 815 통일대축전과 민족공동행상 때 무엇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깊이있게 논의하고 결정을 하는 부분은 없었고 다음 모임때 구체적으로 가져가자며 마치게 되었습니다.

전체 논의시간은 2시간 30분 정도였으며, 핵심적으로 가져갔던 부분 대표자 모임을 가져가는 취지와 목적이 무엇으로 되어야 하는가 였습니다.

일단 대표자분들이 많이 모이시지 않은 관계로...

17일 자리에서 모이신 대표자분들이 충청지역 대학생 대표자 모임의 발기인이 되셔서 자기 단위 근방의 총학생회장님들과 만나 제안하고 23일 2차 대표자 모임을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고 회의는 끝마치게 되었습니다.

23일 2차 모임에서는 이 모임의 취지와 목적을 명확히 결정을 하고 명칭은 어떻게 될 지는 모르겠으나 공동으로 묶일 수 있는 조직적 형태를 건설을 하는 논의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그 자리에서 남북청년학생통일대회때 함께 가져갈 사업과 방북단이 결정이 되어지고 지역 축전과 8.15행사때까지 같이 할 사업과 투쟁에 대해서 논의가 진행 될 것 같습니다.

기간 모임을 제안하기까지 연락처를 알아내고, 실제 만나는 시간이 모임이 있기까지 너무도 짧은 시간이어서 모임 하루전에 연락이 취해진 대표자분들이 많았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대표자분들께서 이번 모임은 힘들지만 다음모임에 꼭 참석을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대부분인지라 이번 1차 모임을 통해 각 대표자분들이 발기인이 되시고 다음 2차 모임을 힘있게 준비를 한다면 거의 대부분의 대표자분들이 함께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실제 그 자리에서 함께 공통분모를 잘 찾고 낮은 수위에 함께 할 수 있는 사업과 투쟁을 찾아내어 가져가고 6.15공동선언 기치 높이 민족통일촉진운동기간에 설정되어 있는 여러 행사에도 함께 준비하고 참가할 수 있게끔 준비를 잘 가져갈 계획입니다.

그동안 대부분의 대학들과 의사소통이 단절된 속에서 많은 대학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함께 가져갈 수 있는 사업과 투쟁도 놓치며 왔었던 지난 기간이 참으로 반성이 많이 되었습니다.

15만 충청지역의 대학생들의 자주적 이해와 요구를 받아안고 사업과 투쟁을 전개하는 충청총련이 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는 굳은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민족통일촉진운동기간!

진정 모든 예비와 잠재를 동원해 통큰 연대연합, 단결로 조국통일의 역량을 질적으로 양적으로 강화확대하고, 운동 대중화 실현으로 한국 학생운동의 역사에서 찬란한 금문자로 장식될 기간으로 백만 청춘들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무더운 날씨 백만 청춘들 건강주의 하십시오. 힘내서 투쟁합시다. 투쟁!

애국의 열정! 승리의 확신!
8기 충청지역 대학 총학생회 연합

미국이 내외민중들의 항의와 규탄에도 불구하고 15일에 또다시 미사일요격시험을 실시한 것과 관련해

구국의 소리 7월 17일

이미 보도가 됐습니다만 미국방부는 우리 나라 시각으로 15일, 오전 8시 필리핀열도에 있는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서태평양 콰잘레인 환초에서 발사된 개량형 미니트맨미사일을 남태평양에서 요격미사일을 쏴 격추시키는 방법으로 미사일요격시험을 했습니다. 이것은 군비경쟁을 막으며 세계의 항구적인 평화를 바라는 세계 진보적 민중들에 대한 난폭한 도전행위인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미사일방어체제란 위성감시수단들과 연결되는 요격무기들을 지상과 해상, 잠수함에 배비해서 날아오는 적미사일을 조기에 포착하고 공중에서 소멸한다는 요격무기체계입니다.

미국은 핵보유국들과의 대결에서 우세를 차지하고 전세계를 제패하려는 목적하에 지난 80년대초부터 미사일방어체제구축에 착수했습니다. 초기에는 일명 별세계전쟁계획으로도 불린 이 구상이 90년대초부터는 미사일방어체제계획으로 이름을 바꿔달고 본격적으로 추진돼갔습니다. 미국은 냉전호전분자들의 미사일방어체제의 연구, 개발, 시험에 무려 700여억달러를 쏟아부었습니다.

미국은 이 야심적인 체제구축을 합리화하기 위해 있지도 않는 이북의 미사일위협을 들고 나왔습니다. 미국은 3년전에 이북에서 평화적인 목적으로 인공위성을 발사한 것을 미사일발사라고 우겨대면서 이북이 지금 일본은 말할 것도 없고 미국의 알라스카까지 타격할수 있는 대륙간탄도로켓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요격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해야한다는 당치 않은 주장을 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와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 미국군부내 일부 장성들까지 현실적으로 이북의 미사일위협은 없다면서 부시행정부가 있지도 않은 이북의 미사일위협을 떠들어대는 것은 범죄적인 미사일방어체제구축을 합리화하기 위해 조작한 구실에 지나지 않는다고 폭로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북을 걸고 추진하는 미사일방어체제구축의 저의는 구체적으로 저들의 세계제패의 전략실현의 장애로 되는 이북을 핵선제타격해 우리 민족을 공멸시키고 핵미사일독점권을 차지해 대국들을 견제, 제압하고 패권적 지위를 확립하며 미국군수독점체들의 막대한 폭리를 주자는데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난 13일 월포비치 국방부부장관이 미상원군사위원회에서 미국방부가 첫단계로 2004년초까지 개발된 5개 요격미사일을 한반도에 배치하겠다고 공언한 사실이라든가, 미사일방어저지와 평화실현공동대책위원회가 지난 13일 기자회견을 갖고 미국의 미사일요격시험을 규탄하면서 그것이 우선 이북을 겨냥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힌 미행정부 문서를 공개한 사실 등에서 뚜렷히 실감되고 있습니다.

이같이 부시행정부의 미사일방어체제구축책동이 우리 민중, 우리 민족에게 무서운 핵참화를 강요하고 세계평화를 위협하며 군비경쟁을 초래한다는데 그 위험성과 범죄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겨레는 물론 세계 진보적 인류가 그처럼 미국의 범죄적인 미사일방어체제구축책동을 반대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반사실은 부시행정부의 호전성과 침략성, 반인륜적 체질을 잘 알수 있고 그들의 범죄적 책동을 저지파탄시키지 않고서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은 물론 세계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전을 기대할수 없다는 것을 잘알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은 반평화적이고 반인륜적인 미사일방어체제구축책동을 당장 중지하고 이땅에서 핵무기를 비롯한 각종 살인무기들과 함께 주한미군을 무조건 즉시 철수시켜야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구국의소리 방송
1053Mhz, 3840, 4123, 4400, 4450, 4557, 6010khz



경향각지의 *** 역사교과서왜곡에 항의해 여러가지 투쟁을 벌이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구국의 소리 7월 21일



사회자 : 아시다시피 ***그 투쟁이 어떻게 벌어지**********.

윤정원 :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책동을 규탄하는 투쟁은 서울과 부산, 전주, 군산, 안동, 동해시를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실 ***까지 **그야말로 범국민적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학교들과 맺은 자매결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과소비추방운동본부는 일본의 역사교과서왜곡을 항의규탄하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전국 학생, 학부모 등 205만명이 서명한 서명서를 지난 16일 오후 이한동국무총리에게 전달했습니다. 부산시 일본역사왜곡규탄범시민추진위원회는 12일, 부산시 초량동 일본영사관 근처에서 400여명의 시민들이 참가한 가운데 역사왜곡규탄집회를 열고 왜곡된 역사교과서의 즉각적인 수정과 공식사과 등을 요구했습니다.

사회자 : 전주 북일초등학교와 익산 초등학교, 군산 계종초등학교 등은 일본 학교측에 역사바로알기와 항의의 뜻을 전달하기도 했구요, 임실 지사중학교는 자매결연을 맺은 일본학교에 편지를 보내서 잘못된 역사교과서를 채택하지 말도록 촉구한 일도 있죠.

윤정원 : 그뿐 아닙니다. 안동 서부초등학교는 일본과의 교류활동을 중단하기로 했고 민족문제연구소와 우리역사바로알기시민연대 등 80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일본교과서바로잡기운동본부는 지난 16일 오후 서울 시내에서 우리 국민들의 왜곡된 일본역사교과서에 대한 시정노력을 일본국민들에게 알리는 광고를 일본의 중요신문에 내기 위한 모금운동을 벌였습니다. 일본의 역사교과서왜곡을 항의규탄하는 투쟁을 열거하자면 많아요.

사회자 : 그렇겠죠. 우리 민중이 일본의 역사교과서왜곡책동을 항의규탄하는 투쟁을 벌이고 있는건 천백번 정당하다고 봅니다. 그건 일본의 역사교과서왜곡책동이 우리 민족의 자존심에 크게 손상을 주고 우리 나라에 대한 재침을 위한 사상정신적 준비를 **하는 매우 불순한 목적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새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 주최자로써 일본의 우익세력들이 편찬한 이른바 새 중학교역사교과서는요 일본군국주의자들이 일으킨 우리 나라를 비롯한 해외침략문제를 왜곡, 미화하고 부인하는 것으로 일관돼 있습니다. 그들은 역사교과서들에서 침략역사를 왜곡하고 제2차대전과 그 이전시기에 일본군이 감행한 만행들을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단적으로 그들은 지난 시기 일제가 우리 나라를 비롯한 아시아의 수많은 나라 여성들을 강제연행해 성노예로 만든 반인륜적 범죄행위는 아예 반영하지도 않았습니다.

윤정원 : 네, 교과서에 마땅히 서술해야할 내용을 고의적으로 빼놓은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라고 말할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당국은 우익 반동단체들이 중학교 역사교과서에서 범죄적 역사를 왜곡, 미화해 서술한 것을 명백한 잘못이라고 말할수 없다고 하면서 검정제도의 기준에 따라 합격된 결과를 시정할수 없다며 재수정요구를 거부해 사람들을 분격시키고 있는데요.

일본당국자들의 재수정요구거부주장은 한갖 도전입니다. 왜냐하면 규정상 문부과학성이 합격을 했더라도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지시할수 있으며 기필코 재수정해서 문부과학성이 심의를 요청할수 있어요. 만약 그런 규정이 없다해도 남의 나라에 해를 주는 ***나돈다면 마땅히 태워버리거나 없애버리는 ****.

사회자 :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더욱 가소로운건요, 일본당국이 일본에는 사상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집필자가 역사를 잘못 서술해도 수정을 지시할수 없다면서 우리 민족의 재수정 요구를 내정간섭이라며 도리어 비난하고 있는 것은 그야말로 도둑이 매를 드는 격이라고 아니할수 없는데요. 일본당국자들에겐 도대체 당신들이 말하는 사상의 자유라는 것이 뭔가, 그것이 남의 나라 역사를 마음대로 왜곡하는 자유, 피로 얼룩진 일본의 범죄적 침략역사를 왜곡서술하는 자유인가. 그런 범죄적 사례는 세계 진보적 민중들에게는 통할수 없다는 걸 일본당국자들은 알아야합니다. 그리고 역사를 왜곡하면서 남에게 해를 주는데 대해 시정하고 사죄하라는 요구가 내정간섭이라면 일본정부가 지난 91년 미국의 **교과서에 대해 중일전쟁은 일본정부가 의도적으로 일으킨게 아니라는 것을 강조해달라고 주문해 사실을 왜곡하려한건 내정간섭이 아니란 말인가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그때 일본정부는 그것이 내정간섭이라고 했다면 아마 펄펄 뛰였을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실을 통해서도 일본 당국자들이 얼마나 비열하고 철면피한 자들인가를 잘알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일본당국자들이 왜 내외민중들의 역사교과서 왜곡수정요구를 그처럼 한사코 거부하고 있는 겁니까.

윤정원 : 그건 한마디로 일본당국이 내외민중의 요구대로 서술된 역사교과서를 완전히 시정하면 저들의 불순한 목적을 달성할수 없기 때문이죠. 아시다시피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미 군사적, **적 준비는 다 갖췄다고 볼수 있죠. 이제 남은 건 국민의 정신적 준비, 더욱이 새 세대들에 대한 사상정신적 준비를 갖추는 겁니다. 그래서 중학교용 역사교과서를 왜곡서술해 보급하려 했는데 내외민중들의 강력한 항의와 요구에 못이겨 수정한다면 당초 목적을 달성할수 없게 될게 아닙니까. 그래서 한사코 수정요구를 거부하고 있는거죠.

사회자 : 네, 옳게 보셨습니다. 일본 잡지 ≪세카이≫ 6월 19일호도 폭로했지만 심히 왜곡된 역사교과서의 출현은 집권여당인 자민당을 연결하는 정치적 합작 *** . 그렇기 때문에 일본정부당국자들이 당치 않은 구실을 붙이면서 왜곡된 역사교과서의 재수정요구를 한사코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뒤에서 왜곡된 역사교과서를 만들도록 부추기고 앞에서는 모르는채 하면서 마치 저들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처럼 하는 일본당국자들의 행동은 정말 뻔뻔스럽고 파렴치하기 그지없다고 아니할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일본정부의 역사교과서재수정을 거부한 배경에 대해 따져보지 않을수 없다고 봅니다.

윤정원 : 일본정부가 역사교과서재수정을 거부한 배경을 날로 노골화되고 있는 일본의 우익화, 군국화의 경향과 결부시켜 봐야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최근 고이즈미 일본총리의 야스쿠니신사참배 강행입장, 일본의 평화헌법을 전쟁헌법으로 뜯어고치기 위한 움직임, 노골적인 자위대의 해외파견시도, 독자적인 미사일방어체제구축시도 등은 일본군국주의세력이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실현하기 위해 몹시 서두르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일본당국의 왜곡된 역사교과서수정요구거부도 바로 이런 배경에서 불순한 목적을 추구하기 위한 거죠.

사회자 : 우리는 일본당국의 왜곡된 역사교과서수정거부를 통해서도 일본 통치*****철저히 경계하고 그들의 한반도 재침야망을 꺾어버리기 위해 끝까지 투쟁해야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데요. 그래서 일본군국주의 세력에 대한 경각심을 더욱 높이고 ***마음의 준비도 단단히 갖춰야 합니다.

지금까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국가보안법폐지를 위한 시민모임 결 성 선 언 문

국가보안법이 존재해온 지난 반세기 동안 국가보안법은 오로지 독재권력과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 충실해 왔다.

1948년 12월에 일제시기 독립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제정된 치안유지법을 본 떠 만든 국가보안법은 40여년에 걸친 독재 시기 동안 계속해서 강화되어 왔다. 노태우 군사독재 정권 때 국가보안법의 일부 조항이 개정되었지만 과거 군사정권 때의 기본 골격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문민정부를 사칭한 김영삼 정권 때는 안기부의 수사권을 부활하는 개악을 했다. 국민의 정부를 사칭한 김대중 정권은 국가보안법 개정을 공약했다. 그러나, 정권의 임기가 끝나가는 이 시점에도 국가보안법을 그대로 유지시킨 채 민중운동세력과 통일운동세력을 탄압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인간의 본성에도 반하고 민주주의에도 반하고 남북화해의 민족사적 흐름에도 반하고 탈냉전의 세계사적 흐름에도 반한다. 무엇보다 국민의 뜻에 반하는 법이다. 국가보안법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악법의 반열에 올라 있다. 악법은 더 이상 법이 아니다. 국가보안법은 이 세상에 있어서는 안될 법률인 것이다.

정권교체의 바람을 타고 집권한 김대중정권이 들어선 이후에도 한총련과 범민련은 여전히 이적단체로 규정되어 활동의 자유를 억압당하고 있다. 현정권은 600 여명에 이르는 한총련 대의원을 수배했고 한총련 활동가들을 구속하고 있다. 현정권이 들어선 이후 영남위원회사건, 이른바 민혁당사건, 이른바 단국대활동가그룹사건 등 이적단체 조작사건이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지난 민주노총 연대파업을 하루 앞둔 7월 4일에는 서울민주노동자회 회원 9명을 이적단체 구성 혐의로 구속했다. 또 얼마 전에는 범청학련남측본부 황선대변인을 구속했다.

탈냉전의 바람이 불고 남북화해의 큰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는 21세기에 이르도록 세계적인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철폐시키지 못하고 현실에 안주해 온 우리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큰 부끄러움을 느낀다. 악법은 시민이 직접 나서서 시민의 단결된 힘으로 폐지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는 오늘 국가보안법이라는 악법 중의 악법을 폐지시키는 활동을 전문으로 하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시민모임≫(국폐모)를 결성한다.

비록 작은 힘일지라도 많은 사람의 힘을 하나로 모으면 국가보안법이라는 악법을 이 세상에서 없애고 정의로운 사회, 나아가 통일조국을 앞당길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우리의 결의를 밝힌다. 국가보안법이 없어지는 그 날까지 우리의 지혜와 힘을 모아 힘차게 투쟁해 나가자!

2001. 7. 17
국가보안법폐지를 위한 시민모임

전화: 744-7988 팩스: 745-4988
www.antikukbo.net antikukbo@antikukbo.net
주소: 서울시 종로구 종로 6가 6-36 세화빌딩 5층



6.15남북공동선언이행과 국가보안법폐지를 위한 한마당

2000년 6월 15일 남북정상간의 만남, 그리고 6.15남북공동선언의 발표!

분단국가에서 외쳐진 조국통일 함성의 결실이 맺어지던 날.

많은 사람들이 기쁨의 눈물을 흘렸고, 통일의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 뒤로 이어진 비전향 장기수의 송환, 이산가족의 만남, 경제계, 학계, 문화계, 종교계 등 교류가 활발해지고, 통일철도 경의선이 다시 이어지는 통일의 기적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남북의 노동자들이 5월 1일 노동절을 금강산에서 함께 기념하였고, 48년 남북제정당사회단체연석회의 이후 실질적으로 2차 회의라고 할 수 있는 민족통일대토론회가 6.15공동선언 발표 1돌이 되는 6월 15일 금강산에서 있었습니다. 700여명의 남북동포들이 하나로 어우러져 ≪6.15공동선언과 민족의 과제≫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하면서 전민족적인 통일의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조마간 남북의 농민, 청년학생이 통일대토론회와 통일대회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바로 6,15 공동선언의 이행의 힘입니다.

그러나

조국통일의 순풍이 불어 오리라던 우리의 기대는 조금씩 깨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반쪽을 적이라 규정하고, 조국통일을 위해 헌신해온 범민련 한총련을 이적단체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화와 통일의 국면에 전쟁 때나 필요한 중무기를 사들이고, 정전협정에서 일방적으로 북방한계선을 정해놓고 침범이니 강경 대응이니 냉전의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수구보수세력들은 여전이 통일의 순풍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특히 7월 17일은 우리 나라 헌법이 제정된 뜻깊은 날입니다.

하지만 초헌법적인 국가보안법은 서슬 퍼렇게 살아서 통일운동에 열정을 바치고 있는 많은 사람들과 단체를 구속하고, 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일의 이정표 6.15공동선언 이행에 불을 댕겨야 할 때입니다.

≪민족통일운동촉진기간≫를 우리로부터 실천적으로 만들어 나가야겠습니다.

전체 시민들과 6.15공동선언의 역사적인 의의를 다시 한 번 새기고, 8.15민족공동행사를 범민족적으로 성사하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나누고, 걸림돌이 되고 있는 국가보안법 철폐를 강력하게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주관: 범민련후원회, 민가협양심수후원회, 국가보안법관련정치수배자농성단, 단국대대책위,민혁당대책위, 서울지역민주노동자회대책위, 국가보안법폐지를위한시민모임

주최; 국가보안법폐지 범국민연대, 통일연대

일 시 : 2001년 7월 21일 토요일 늦은 3시

장 소 : 남산 안기부터--≫행진--≫명동들머리--≫서울역

2001/7/19(목) 11:59

주식회사 조선일보와 그 종사자들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오늘(18) 고려대, 서울대, 부산대, 연세대, 전북대내 조선일보 반대모임,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전대기련), 청년우리모두(조선일보 반대 사이트)는 서울 참여연대 느티나무 카페에서 신문개혁촉구와 조선일보 반대를 위한 전국 대학생 기자회견을 열고, 조선일보에 8천여명 대학생 공동명의의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유뉴스))

우리 8천여 명의 대학생들은 미래의 주인으로서 도덕적으로 보다 향상된 사회를 염원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신문개혁 촉구와 조선일보 반대를 위한 전국 대학생 선언≫에 동참하였다. 자신에 대해 비판하는 사람들을 항상 ≪익명의 뒤에 숨어있는, 특정 정치세력의 사주를 받은≫ 사람들로 부당하게 매도해온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이번 기회에 소속을 밝히며 각자의 실명을 걸고 본 서한을 보내게 되었으니 귀담에 들어주기 바란다.

우리는 당신들의 천문학적인 액수의 탈법 · 탈루 세액을 접하며 사회를 비판하고 감시해야 할 언론이 오히려 스스로 썩어 들어가고 있었다는 사실에 경악한다. 이런 비리에 연루된 사람들을 법에 따라 엄중 처벌하는 것은 당연하고 상식적인 일이다. 초등학생도 아는 ≪죄를 지은 사람은 벌을 받는다≫라는 단순한 명제가 이리 뒤틀리고 저리 왜곡되어 ≪남이 지은 죄는 반드시 처벌하되 내가 지은 죄를 거론하는 것은 탄압≫이라는 해괴한 모습으로 바뀌어 버린 곳이 있으니 바로 당신들이 매일 만들어내고 있는 ≪조선일보≫이다.

더욱 가관인 것은 ≪비판언론을 압살하려는 권력의 음모≫ 운운하며 ≪분연히 맞서 싸우겠다≫는 기자단 명의 성명서이다. 비장함마저 엿보이는 당신들의 언론자유 수호 투쟁 선포를 보며 우리는 묻고자 한다. 과연, 지금보다 더 자유롭게 정권을 비판할 수 있었던 때가 우리 역사에 있었다면 그게 언제인가. 우리는 묻고자 한다. 우리의 선배들이 최소한의 언론자유마저 빼앗긴 채 목숨걸고 도서관에서 줄을 타며 독재정권을 향해 ≪민주주의≫를 외칠 때 당신들 ≪조선일보≫는 어디에 있었는가.

독재자에게 아부하고 광주시민을 폭도로 몰았던 ≪조선일보≫가 ≪언론자유수호투쟁≫이라는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고 서 있는 기막힌 현실 앞에서, 결국은 당신들의 ≪밤의 대통령≫을 엄호하려 한 목소리로 합창하는 삐에로의 슬픈 얼굴을 본다. 또한,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언론의 자유가 만개하고 있음을 우리는 ≪조선일보≫의 지면을 통해서 확인한다. 하기에 당신들이 ≪언론의 자유≫를 말할 때, 되려 우리는 ≪언론의 책임≫에 대해서 묻고자 한다. 공적인 매체에서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대상을 조직적으로 변호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 우리의 입장은 확고하다. 그것은 또 다른 형태의 사회적 범죄행위라는 것이다.

당신들이 그토록 일사불란하게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을 볼 때, 어디에나 있기 마련인 젊은이의 싱싱한 ≪지성≫과 ≪의기≫가 ≪조선일보≫에 만은 없는가라는 씁쓸한 조소를 머금게 된다. 우리는 ≪조선일보≫의 젊은 기자들에게 촉구한다. 이제라도 ≪편집권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에 나서라. ≪조선일보≫가 스스로 쇄신하지 않는다면 다가올 우리들의 시대에는 결국 ≪조선일보≫가 기피혐오의 대상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엄중 경고한다.

또한 당신들이 지금의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또다시 한나라당과 파트너가 되어 ≪지역감정≫과 ≪색깔론≫으로 본질을 흐리려하고 있는 것을 목격한다. 우리는 묻고자 한다. 사회 각계각층에서 전국 방방곡곡에서 바로 지금 그런 ≪오래된≫ 분탕질을 성토하는 목소리들이 정녕 들리지 않는가? ≪조선일보≫는 과거에 대해서 국민앞에 사죄하고 사주 일개인의 신문이 아닌 국민의 신문으로 거듭나는 ≪정공법≫을 취하는 것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라는 충고를 명심하기 바란다.

우리는 진정한 ≪언론자유≫를 위해서라면 ≪조선일보≫보다 앞장서서 싸울 것임을 이 기회를 빌어 천명하는 바이다. 이런 우리가 ≪탄압을 받고 있다≫ 주장하는 당신들에게 되려 각성을 촉구하는 까닭은 단순하다. 언론의 자유는 ≪국민의 자유≫이지 ≪사주의 자유≫가 아니기 때문이며, 언론의 자유는 ≪말할 권리≫이지 ≪탈세의 권리≫가 아니기 때문이다. 오늘, 이렇게 상식적으로 단순한 진실을 말하는 우리를 또다시 ≪홍위병≫으로 몰아간다면 ≪조선일보≫는 더 이상 헤어나올 수 없는 나락으로 추락하고 말 것이라는 사실을 경고하는 바이다.



신문개혁 촉구와 조선일보 반대를 위한 전국 대학생 선언 참가자 일동
2001년 7월 18일

한반도 평화를 위한 범국민대회(가칭)

지난 통일연대 대표자회의를 통해서 7월 28일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기 위한 반미집회를 가질 것을 결의한 바 있습니다.

≪6.15남북공동선언실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통일연대≫는 마땅히 6.15남북공동선언실현에

장애로 되고 있는 한반도에서 긴장조성문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가져야 하며 이날

대규모적인 평화협정 요구를 위한 대중집회를 가질 것을 자신의 요구로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지금 미국무부장관 파월의 방한에 맞춰 미국이 진행하려는 세계패권주의 전략인

MD 정책을 강력히 규탄하며 멈추지 않고 있는 미국의 내정간섭에 반대하는 투쟁을 지속적

으로 전개해야 합니다.

통일연대는 대표자회의 결정사항에 따라 우선 다음과 같이 집회의 기조를 우선적으로 제출

하며 파월의 방한을 반대하고 MD구축저지와 평화협정체결의 필요성에 동의하는 모든

주요연대단체에 공동주최를 위한 기획회의를 가질 것을 제안합니다.

– 일시 : 2001년 7월 28일 2시

– 장소 : 용산미군기지 앞

2001-07-12 ≪08:49≫

매향리주민 63빌딩앞 록히드마틴사 규탄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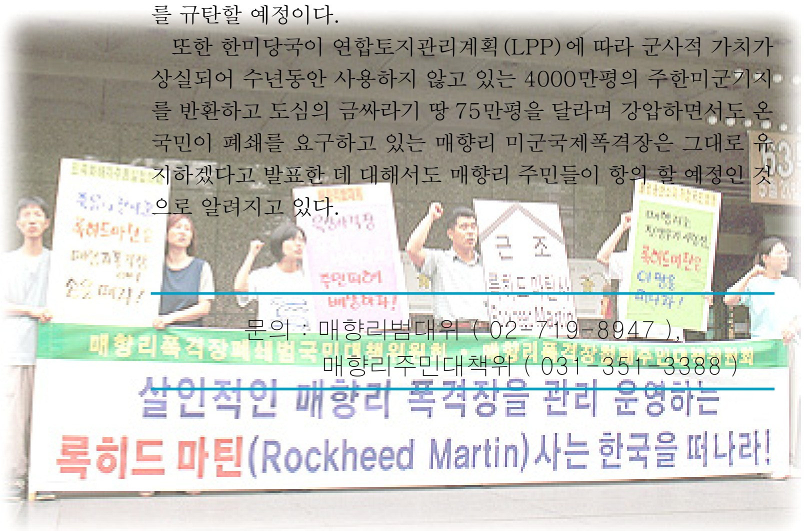
기자 : 최지민 / 작성일 : 2001-07-23 19:51:04

미국의 군수산업체인 록히드 마틴사를 규탄하는 투쟁에 매향리 주민들이 본격적으로 나섰다.

오는 27일 오전 록히드 마틴사가 입주해 있는 여의도 63빌딩 앞에서 매향리미군폭격장 폐쇄! 록히드마틴사 규탄! 매향리 주민집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매향리 주민들의 집회에서는 매향리 폭격장을 관리운영하면서 온갖 전쟁무기를 시험하고,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미사일 방어체제에 중심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록히드 마틴사를 규탄할 예정이다.

또한 한미당국이 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따라 군사적 가치가 상실되어 수년동안 사용하지 않고 있는 4000만평의 주한미군기지를 반환하고 도심의 금싸라기 땅 75만평을 달라며 강압하면서도 온 국민이 폐쇄를 요구하고 있는 매향리 미군국제폭격장은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서도 매향리 주민들이 항의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문의 : 매향리범대위 (02-719-8947),
매향리주민대책위 (031-351-3388)



27일 파월 미 국무장관의 방한 규탄 서울 상경 투쟁 충청총련 총력 집중!

5차 충청총련 중앙위 및 대표자회의에서 방중조직생활을 투쟁으로 복구하면서, 방중투쟁의 중간총화점으로 27일 파월미국무장관 방한규탄서울상경투쟁으로 총화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 투쟁에 대한 의의

계속되어지고 있는 미국의 MD 구축강행이 되어지고 있으며, 이것을 강요하는 미국에 대한 강도 높은 규탄투쟁이 될 것입니다.

또한 파월방한을 기점으로 반미투쟁의 세력들이 결집되어 대규모 투쟁을 벌이는데 있어 청년학생들이 적극적으로 결합하여 투쟁의 파고를 더욱 높여내어야 합니다.

또한 6.15공동선언을 실현하고자 남북의 민족대단결의식이 고취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현정권의 한반도 군사적 대결과 긴장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을 적극적 투쟁으로 분쇄해내고 6.15공동선언을 실현하고 조국통일을 앞당기는 투쟁이 될 것입니다.

또한 현재 민중생존권이 벼랑끝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되는 미국의 무기강매 강요는 민중들의 삶을 더욱더 피폐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부시정권은 한국정권에 무려 100억달러 (13조 원)에 달하는 무기구입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파월은 10조원에 달하는 무기를 한국정부에 팔아치우기 위해 엄청난 로비를 벌이고 있습니다.

파월의 방한은 MD강요 뿐아니라 엄청난 양의 무기를 강매하려고 합니다.

13조원이면 파탄난 건강보험을 정상화시키고, 구조조정으로 쫓겨난 노동자들에게 수많은 일자리를 보장할 수 있는 액수입니다.

소중한 혈세가 미국을 살찌우는 것으로 쓰일수 없습니다.

파월 방한 규탄투쟁은 미정권의 무기강매를 저지하고 남북간의 긴장 격화를 막아내면서 민중 생존권을 지키는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 투쟁기조

– 각종 반미투쟁을 고양시켜내고 모든 동력을 집중시켜 냅시다.

일시적 투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파월방한반대투쟁은 6.15공동선언 실현 북미남북관계 한반도 평화통일 주한미군의 기지반환과 범죄문제, 무기강매, 경제침탈 등 반미관련 모든 사안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든 반미현안들에 대한 투쟁의 파고를 높여내야 합니다.

– 27일 투쟁 기조 : 대중집회와 그림자투쟁이 결합된 형태 (MD공대위 투쟁에 결합)

공항기자회견 및 투쟁→ 방문지 동행투쟁→대규모 대중집회→ 숙소 릴레이 1인시위

*구체적투쟁 계획은 추후제출

○ 각단위투쟁지침

– 통일연대에서 진행하는 총력투쟁에 적극 결합한다.

– 조직생활을 강고하게 가져가면서 27일 투쟁으로 총화하자.

– 파월 방한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반드시 정세토론을 조직생활에서 집단적으로 진행하자

애국의 열정 승리의 확신 8기 충청총련
2001/07/23 (15:49)

민족대단결의 위대한 경륜

구국의 소리 7월 20일 - 21일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나라의 통일을 자주적으로 해결할걸 명시한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이 채택된지도 벌써 1년이 지났네요. 우리 민족은 일찍이 민족대단결의 사상을 제시하시고 민족대단결의 숭고한 모범을 창조하신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뜨겁게 되새기고 있습니다. ≪민족대단결의 위대한 경륜≫ 김현규씨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 일찍이 역사상 처음으로 주체사상에 기초하시어 민족문제를 새롭게 밝히시고 독창적인 민족대단결사상을 제시하신 위대한 업적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빛나고 있습니다.

주석님의 민족대단결사상은 주체사상을 민족문제에 구현하시어 제시하신 철저한 민족자주의 사상이고 숭고한 애국애족의 사상이며 가장 폭넓은 민족단합의 사상입니다. 위대한 주석님의 민족대단결 사상은 또한 우리의 우수한 민족성을 고수하고 높이 발양시키며 민족수난의 치욕스러운 역사를 끝장내고 나라의 자주독립과 민족의 무궁번영을 위한 가장 올바른 길을 밝혀준 탁월한 사상입니다.

민족대단결사상은 오직 주체사상의 창시자이시며 숭고한 조국애, 민족애, 넓은 도량과 포옹력을 지니신 민족의 어버이 **김일성**주석님께서만이 내놓으실수 있는 위대한 사상입니다. 우리 민족은 세월이 흐를수록 민족대단결사상을 제시하시고 우리 민족의 단결을 위해 한평생 크나큰 노고와 심혈을 바쳐오신 **김일성**주석님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는 간고한 항일대전의 첫시기부터 반일민족통일전선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에 큰 힘을 넣으셨습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는 전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을 독립시키려면 공산주의자이건 민족주의자이건 할것없이 모든 반일애국역량을 하나로 결집시킬수 있는 민족통일전선조직체를 내와야 한다는 것을 통찰하시고 그 준비사업을 하나하나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주체 25 (1936)년 5월에 반일민족통일전선체인 조국광복회를 창립했습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 조국광복회를 창립하시고 조국광복회10대강령을 발표하시자 각계층민중속에서는 커다란 반향이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공산주의자들을 멀리하던 종교인들도 조국광복회10대강령을 지지해서 반일투쟁에 적극 분기해 나서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김일성**주석님께서는 조국이 광복된 후 평양에서 개선연설을 하실때도 힘있는 사람은 힘으로, 지식있는 사람은 지식으로, 돈있는 사람은 돈으로 건국사업에 적극 이바지하며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고, 민주를 사랑하는 전민족이 굳게 단결하여 민주주의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해 나가자고 열렬히 호소하셨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민족대단결의 위대한 경륜을 펼치신 주석님의 불멸의 업적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더 높아졌습니다. 주체 82 (1993)년에 위대한 주석님께서는 항일대전 시기의 조국광복회10대강령을 발표하시고 민족대단결을 이룩하신 경험에 기초하시어 남과 북, 해외의 각계층 애국역량을 조국통일의 기치밑에 결집시키기 위해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을 작성발표하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주체 87 (1998)년 4월 역사적인 남북조선정당사회단체대표자 연석회의 50돌기념 중앙연구토론회에 보내신 서한에서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 발표하신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은 주석님의 민족대단결사상과 그 실천적 경험의 총화이며 불멸의 민족대단결총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에는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는 데서 견지해할 근본원칙과 이념적 기초, 그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들도 뚜렷이 밝혀져 있다고 하셨습니다.

참으로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 제시하신 민족대단결사상과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 주석님께서 이룩하신 민족대단결의 고귀한 전통과 업적은 우리 민족의 만년재보이며 온 민족의 대단결과 조국통일을 위한 튼튼한 밑천입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민족대단결사상과 업적은 오늘 경애하는 **김정일**영도자님에 의해 더욱 빛나고 있습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 남기신 민족단합의 위대한 사상과 업적, 풍부한 경험과 전통을 고수하고 계승발전시켜 조국통일위업을 끝까지 완수하려는 것은 **김정일**장군님의 확고한 결심이고 의지입니다. 그분께서는 온 민족의 대단결은 곧 조국통일이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내외의 정세로 보나, 우리 민족의 근본이익과 시대의 추이로 보나, 지금은 온 민족이 대단결을 이룩해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구원하고 통일된 하나의 조국, 하나의 민족으로서의 존엄과 영예를 높이 떨쳐야 할 때라시면서 민족대단합을 실현하시기 위해 모든 정력을 다바치시고 계십니다. 하기에 55년 분단사상 있어본적 없던 김대중대통령의 평양방문이 이루어지고 이남이 정계, 재계, 사회계 등 각계층인사들이 평양에 줄지어 찾아가고 있으며 6.15남북공동선언과 같은 통일의 이정표가 장군님에 의해 마련될수 있었습니다.

정말 **김정일**장군님은 숭고한 조국애와 민족애, 넓으신 도량과 포옹력으로 남과 북, 해외의 온 민족을 한품에 안아주고 계시는 민족의 어버이시고 민족대단합의 구심이십니다. 민족대단결의 위대한 정치를 펼치면서 민중은 물론 어젯날 조국과 민족앞에 죄를 지은 사람도 애국애족의 길에 나서면 너그럽게 포옹하시어 참다운 길로 이끄시는 **김정일**장군님이 계시는한 조국은 반드시 통일되고 이 땅위에는 7천만 온 겨레가 대대손손 복락할 강성부흥하는 통일조국이 반드시 올것입니다.

한민전 전위들과 각계애국민중은 정세가 준엄하고 시련과 난관이 앞을 가로막는다 해도 위대한 정치가, 위대한 영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민족대단결의 구심점으로 높이 받들어 모시고 민족대단결을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으로써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통일유훈을 하루빨리 실현해야 할줄 압니다.

감사합니다.



6.15공동선언이행은 통일의 지름길

구국의 소리 7월 11일 - 13일, 16일

6.15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된 때로부터 1년 남짓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길지않은 이 기간에 남북사이에서 이룩된 성과는 참으로 큰 것이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한번에 수백명의 민중들이 이북에 들어가서 이북민중들과 회합을 가질수 있으라고 어찌 상상이나 할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지금은 이런 만남이 예사로운 일로 되었다 할겁니다. 제반사실은 6.15공동선언이야말로 통일의 이정표이고, 공동선언이행에 통일의 지름길이 있다는 걸 웅변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시간 첫순서로 ≪6.15공동선언이행은 통일의 지름길 윤정원씨 모셨습니다.

사회자 : 안녕하십니까.

윤정원 : 안녕하세요.

사회자 : 역사적인 6.15남북공동선언발표 1주년 기념 민족통일대토론회와 그리고 6.15공동선언이행과정을 통해 우리 민족은 공동선언이야말로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선언이고 조국통일의 공동강령, 공동이정표로 된다는데 대해 다시금 확인했는데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6.15공동선언이행에 통일의 지름길이 있다 는데 대해 얘기를 나눠봤으면 해서 이렇게 모셨습니다. 말씀해주시죠.

윤정원 : 아시다시피 온 민족의 커다란 기대와 관심속에 진행된 6.15남북공동선언발표 1주년 민족통일대토론회에서는 나라의 통일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것, 남과 북에 존재하는 사상과 제도의 차이가 아무리 크다해도 민족적 공통성보다 더 클수 없고 오직 민족공동의 이익을 첫자리에 놓고 하나로 굳게 단결해 나가야 한다는 것, 민족의 자주권을 실현하자면 남과 북이 공동보조를 취해야 한다는 것을 일치하게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조국통일을 열망하는 사람이라면 미일외세의 군사적 긴장조성을 반대하고 그들의 간섭과 개입을 배격해야 한다는 거, 경제문화적인 측면과 정치외교적인 분야에서 남과 북이 협력과 공조를 실현하고 조국통일을 위한 교류와 협력이 전민족적인 것으로 되야 한다고 하면서 남과 북, 해외의 모든 동포들이 공동선언의 이행을 위해 힘과 지혜를 합치고 서로 연대연합해서 온 민족의 단합된 힘을 과시할데 관해 합의했습니다.

사회자 : 그러고 보면 6.15남북공동선언발표로 민족적 화해와 단합, 통일의 열풍을 안아오는 민족사적 전환의 계기가 마련되었고 지난 1년간 그 이행과정을 통해 공동선언의 활력이 확증되었다고 볼수 있지 않습니까.

윤정원 : 그렇죠. 6.15남북공동선언의 이행과정에 민족의 존엄과 기상, 그 위력이 힘있게 과시되고 통일운동에서는 일찍이 있어보지 못한 획기적인 전변이 일어났습니다. 남과 북, 해외의 온 겨레는 남북공동선언이행을 통해 나라의 통일을 외세의 힘이 아니라 우리 민족 자신의 요구와 의사, 주체적 힘에 의거해서 이룩해야 한다는 거, 또 실제로 이룩할수 있다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어요. 이건 온 겨레를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풀어나가도록 추동하는 힘의 원천으로 되고 있습니다. 남북공동선언 발표이후 남과 북 사이에 여러갈래의 대화와 접촉, 왕래가 이루어지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어느때보다도 강화되었고 남과 북 사이의 조국통일을 위한 연대연합이 노동자, 농민, **을 비롯해서 여러 계급, 여러 계층들속에서 활발히 벌어졌습니다. 그밖에도 남과 북 사이에 협력교류도 폭넓게 실현돼서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는데 크게 기여했구요, 인도주의 문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문제들이 진척된 사실은 6.15남북공동선언의 견인력과 활력을 남김없이 과시했습니다.

사회자 : 그런데말이죠. 남북공동선언이후 나라의 통일문제를 풀어나가는데서 적지 않은 성과들이 이룩되고 있지만 자주통일을 이룩하려는 우리 민족의 앞길에는 아직도 여러 가지 장애와 난관들이 가로놓여 있지 않습니까.

윤정원 : 그렇습니다. 우리 민족의 단합과 자주통일을 바라지 않는 부시미행정부는 내외의 일치한 지지를 받고 있는 남북공동선언이행을 공공연히 반대하는 길로 나가고 있어요. 그들은 있지도 않는 북의 핵문제를 거론하고 부당하게 미사일문제와 상용무력문제 같은 것을 들고 나와 강경대응이니 대북정책검토니 하면서 남북공동선언 이후 좋게 발전하고 있는 남북관계에 찬물을 끼얹고 한반도정세를 극도로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익보수세력과 군부계층은 이른바 안보의 구실밑에 외세와의 공조를 운운하면서 북을 반대하는 대규모합동군사훈련을 공공연히 벌여놓고 있고 북을 주적으로 선포하고 남북공동선언을 지지해 나선 통일운동단체들과 각계인사들을 이적으로 몰아 계속 탄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세하에서 남북관계가 순조롭게 발전할수 없을뿐 아니라 6.15공동선언도 제대로 이행될수 없다는 건 불보듯 명백한 일이죠.

사회자 : 그렇죠. 그런만큼 온 겨레의 자주통일염원과 의지가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 남북공동선언이행을 반대하고 있는 내외분열주의세력의 반통일책동을 절대로 용납하지 말아야 하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난 1년간 남북공동선언이행과정에 우리 민족은 공동선언을 철저히 이행해 나가는 여기에 통일을 앞당겨 나갈수 있는 지름길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됐잖아요.

윤정원 : 네, 6.15남북공동선언에도 명확히 밝혀져 있고 이번 민족통일대토론회에서도 일치하게 주장한 것처럼 나라의 통일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하기로 한 것이라든가 또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안의 공통성을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야한다는 것과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자주통일을 앞당겨 실현할 것을 강조한 것은 공동선언이행에 자주통일의 길이 있음을 재삼 확인한겁니다.

사회자 : 그러니까 민족공동의 자주통일강령인 6.15남북공동선언을 더욱 철저히 이행해 나가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신데요. 그럼 이에 관해서 말씀해주시죠.

윤정원 : 네, 6.15남북공동선언을 철저히 이행을 하자면 우리 나라의 통일을 달가와하지 않을뿐 아니라 공동선언이행에 난관을 조성하고 있는 외세의 반통일책동이 지속되는 여건하에서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나라의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하려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는 것, 이게 무엇보다 중요한거죠.

남과 북이 자주적으로 통일문제를 풀어나가기로 합의하고 공동으로 선포한 만큼 이제와서 남의 눈치를 볼 필요는 없어요. 남과 북, 해외의 온 겨레는 민족의 운명을 걱정하고 나라의 통일을 바란다면 마땅히 외세의 간섭을 배격하고 자주통일의 길에 나서야합니다. 바로 여기에 조국통일을 앞당기는 길이 있는거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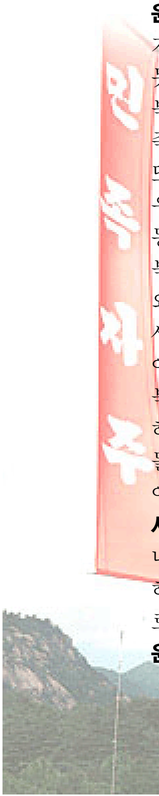
사회자 : 6.15남북공동선언의 기치를 높이 들고 민족의 단합을 이룩해 나가는 여기에 공동선언을 원만히 이행하고 자주통일을 실현할 수 있는 방도가 있다고 보는데요.

윤정원 : 그렇습니다. 6.15남북공동선언을 이행해 나가는데서 선결조건은 민족의 단합에 있다고 봅니다. 우리 민족은 사상과 제도, 정견과 신앙의 차이를 뒤로 미루고 민족애와 민족자주정신에 토대해서 지혜와 힘을 합쳐야하고 남북공동선언을 이행해 나가는 실천속에서 민족적 단합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하는거죠. 민족의 단합을 이룩하면 외세의 간섭도 얼마든지 배격할수 있고 자주통일도 이룩할 수 있는거죠.

사회자 : 네, 옳은 말씀입니다. 6.15남북공동선언에 명기되어 있는 조항들을 성실히 이행해 나간다면 민족의 숙원인 조국의 자주통일을 앞당겨 실현할수 있는겁니다. 각계층 민중은 외세와 반통일세력의 방해책동을 짓부수고 남북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여나감으로써 조국통일위업수행에 이바지해야 할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윤정원 : 감사합니다.

네, 6.15공동선언이행에 통일의 지름길이 있음을 명심하고 공동선언이행에 한사람같이 나설 민중여러분일줄 믿습니다.



오늘도 빛나는 민족의 태양

구국의 소리 7월 8일

언제나 밝게 웃으시며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빛나는 태양의 그 모습
오늘도 마음속에 계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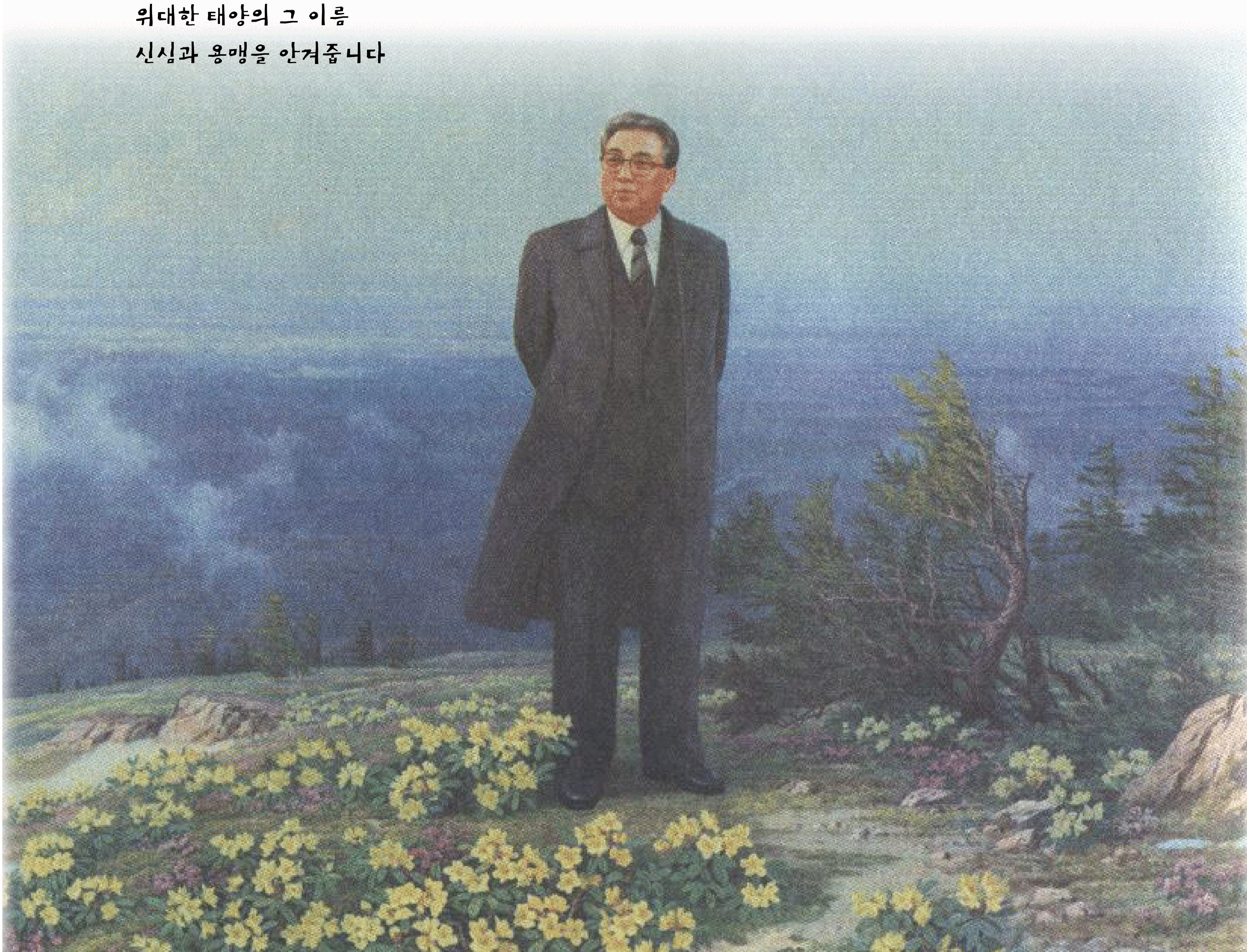
외세에 짓밟혀
한가닥의 빛조차 그리운
어두운 남녘의 가슴가슴에
환하신 미소를 보내주십니다

멀고도 고난에 찬 해방의 길에
어렵고 힘겨워 주춤할때면
위대한 태양의 그 이름
신심과 용맹을 안겨줍니다

자주, 통일, 애국의 길에서
눈앞에 깃발로 나부끼며
6.15선언 관철에 불러주시며
손잡아 이끄시는 우리 어버이

필승으로 새기는 주체의 뜻
자자구구 심장에 새기고 새겨
장군님따라 그 뜻으로 꽃피울
통일삼천리에 천만년 빛나옵니다

아- 오늘도 빛나는 민족의 태양
영원한 어버이 김일성주석님



민족민주전선의 지역통일전선 구축사업

≪두개 전선, 승리를 향한 일보전진≫ / 최성원
(강조 통일여명 편집국)

지난 1월에 북측은 올해 6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두 달 동안의 기간을 ≪민족통일촉진운동기간≫으로 정하고 이를 7천만 민족 앞에 제시하였다. 여기서 우리는 북측이 조국통일이라는 개념을 쓰지 않고 민족통일이라는 개념을 쓰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여야 한다. 북측에서는 조선반도의 통일을 말할 때 민족통일이라는 개념을 쓰지 않고 언제나 조국통일이라는 개념을 쓴다. 그러므로 북측이 말하는 ≪민족통일촉진≫은 민족의 통일을 촉진한다는 뜻이 아니라 민족통일전선을 촉진한다는 개념이며, 민족통일촉진운동기간이라는 개념은 민족통일전선 구축사업을 촉진하는 기간이라는 뜻이다. 민족통일촉진운동기간으로 설정한 것은 예전처럼 남과 북(북과 남), 해외가 모여 통일행사만을 진행하자는 뜻이 아니라 폭넓은 민족통일전선을 구축하자는 뜻으로 해석해야 한다.

그렇다면 민족통일전선은 무엇이며, 어떻게 구축될 수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어내려면 우선 통일전선전략 전반에 관한 새로운 이해가 요구된다. 현 시기 조선반도에서 추진되고 있는 통일전선전략은 크게 두 갈래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전민족적인 통일전선이고, 다른 하나는 남측에서 구축되는 지역통일전선이다.

첫째로, 전민족적인 통일전선에 관하여 살펴보자. 전민족적인 통일전선을 줄여서 ≪민족통일전선≫이라고 부른다. 1980년대의 통일전선전략이론에서는 이것을 ≪남북(북남) 통일전선≫이라고 불렀다.

민족통일전선을 구축한다는 말은 다양한 정치세력, 사회운동세력들이 사상, 이념, 정견의 차이를 넘어서 민족공동의 이익을 찾아내고 이를 추구하기 위하여 결집한다는 것이다. 민족민주전선은 자주, 민주, 통일의 강령을 따르는 사회운동세력이 조직적으로 결합한 전선이지만, 민족통일전선은 그 3대 강령에 따라 결집되는 전선이 아니다. 민족민주전선과 민족통일전선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조선민족의 민족통일전선은 남과 북(북과 남), 해외에 분산되어 있는 정치세력, 사회운동세력들이 사상, 이념, 정견의 차이를 넘어서서 민족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결집하는 전선이다.

우리는 민족통일전선을 구축하는 과업을 반국적 관점에서 벗어나서 전국적 관점에서 인식해야 한다. 조선민족의 민족통일전선은 남과 북(북과 남), 해외의 다양한 세력들이 결집하는 것이므로 그 중심은 북측의 정치역량이 된다. 전민족적인 통일전선의 구축은 북측의 정치역량을 중심으로 하여 남측과 해외의 다양한 세력들이 결집함으로써 완성될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에 북측의 정치역량은 평양회담을 성사시킴으로써 김대중정권을 포괄하는 민족통일전선이 실현가능한 것임을 입증하였으며, 지금 그러한 전민족적 통일전선을 구축하고 있는 중이다. 민족통일전선은 6.15공동선언을 실현하기 위한 전민족적인 통일전선이다. 낮은 단계의 연방제에서 수립될 ≪민족통일기구≫는 바로 이 민족통일전선이 남북(북남) 정부의 정치적 의사와 요구, 그리고 남과 북(북과 남), 해외의 각이한 정치세력, 사회운동세력의 정치적 의사와 요구를 통일적으로 조절하는 지위와 권능을 가진 정치기구로 조직화된 실체를 말한다. 그러므로 민족통일전선의 목표는 민족통일기구를 수립하여 연방제 통일을 실현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민족통일전선을 구축할 수 있는 바탕은 무엇인가? 그것은 6.15공동선언이다. 6.15공동선언을 지지 · 찬동하고 그것을 실현하려는 다양한 정치세력, 사회운동세력들이 6.15공동선언을 중심으로 결집된 새로운 전선이 민족통일전선이다. 민족통일전선을 구축하려는 북측의 정치역량이 민족분열세력의 방해책동을 꺾고 승리한 결과로 6.15공동선언이 성립된 것이다. 6.15공동선언을 제국주의의 조선반도 지배정책이 낳아놓은 산물이라고 보는 착오나 김대중정권의 정치적 의도에 의해서 성립된 것으로 보는 착오는 모두 버려야 한다.

6.15공동선언이 채택됨으로써 남북(북남) 정부당국 사이에서 통일전선을 구축하는 사업은 일단 돌파구가 열렸다. 그러나 남측의 정부만이 아니라 정당, 사회단체들까지 모두 포괄하는 민족통일전선을 구축하는 사업은 아직 돌파구를 열지 못했다. 그렇게 된 것은 남측 정부당국이 방해 · 저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남측 정부당국은 6.15공동선언을 채택하게 된 것이 마치 자기들의 ≪대북 포용정책≫으로 가능했다는 착각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 정책의 통제범위 밖으로 벗어나서 남북(북남)의 정당, 사회단체들이 통일전선을 구축하는 사업을 ≪범죄적 일탈행위≫로 규정하면서 짓누르고 있다. 남측 정부당국은 남북(북남) 정당, 사회단체들 사이의 교류는 허용하지만 민족통일전선 구축사업은 절대로 반대하고 있다. 남측 정부당국은 교류는 자기들의 ≪대북 포용정책≫을 실현하는 방도인 반면, 민족통일전선 구축은 북측의 대남정책을 실현하는 방도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남측 민족민주전선이 남북(북남) 정당, 사회단체들 사이의 교류를 평가절하하거나 소홀히 대해서는 안 된다. 교류 자체를 금압했던 6.15공동선언 이전의 상황에서는 남북(북남)교류를 성사시키기 위한 투쟁 자체가 의의를 가졌지만, 6.15공동선언 이후에는 상황이 달라졌다. 지금은 누가 무엇을 위하여 교류하느냐가 중요한 문제로 등장했다. 민족통일전선을 구축하기 위하여 남북(북남)교류를 추진하느냐 아니면 ≪대북 포용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남북(북남)교류를 추진하느냐가 선택적 문제로 제기된 것이다. 북측의 정치역량이 민족대단결의 원칙에 따라 낮은 단계의 연방제 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대남 교류를 추진하면 그것은 민족통일전선을 구축하기 위한 교류가 된다. 북측의 정치역량이 추진하고 있는 남북(북남)교류는 민족통일전선을 구축하기 위한 유리한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둘째로, 남측에서 구축되는 통일전선에 대하여 살펴보자. 남측의 통일전선에는 두 종류가 있다. 높은 단계의 통일전선과 낮은 단계의 통일전선이 그것이다. 높은 단계의 통일전선을 민족민주전선이라고 부르고, 낮은 단계의 통일전선을 지역통일전선이라고 부른다.

먼저 높은 단계의 통일전선(민족민주전선)에 대하여 알아보자. 높은 단계의 통일전선의 3대 강령을 최고의 높이에서 실현하게 되면 그것이 곧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National Liberation Democratic Revolution)이다. (이 글에서는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NLPDR)이 아니라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NLDR)이라는 개념을 쓰고 있다. 이러한 개념 변화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서술하겠다.) 그러므로 민족민주전선은 종국적으로는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을 수행하기 위한 통일전선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남측에서 민족민주전선의 초기 형태의 조직인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그리고 그 뒤를 이은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이 생겨나기 이전인 1980년대에 정립된 통일전선전략에서는 남측 지역 통일전선을 높은 단계와 낮은 단계로 구분할 필요가 없었다. 당시 파시스트 정권 하에서 정립되었던 남측 지역에서의 통일전선전략은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을 수행하기 위한 통일전선을 구축하는 과업을 해명하였다. 이미 1960년대부터 40여 년 동안이나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에서 투쟁해오고 있는 각양각색의 민족민주전

선은 구체적인 실정에 따라 편차를 보이고 있지만,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을 수행하는 통일전선이다. 그렇지만 남측 민족민주전선은 불과 10년의 연륜밖에 갖지 못한 청소한 운동력이므로 다른 나라의 민족민주전선들처럼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을 수행할 만한 사상적·조직적 준비가 성숙되어 있지 않다. 아직 혁명운동의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으며, 3대 강령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전선운동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물론 남측 민족민주전선은 자기의 역량을 더욱 강화·발전시켜 장차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을 수행하는 높은 단계에 이르게 될 것이다.

남측에서 민족민주전선의 초기 형태의 조직이 생겨난 이후 약 10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그리고 6.15공동선언이 채택된 지금 우리는 통일전선전략이론을 새로운 관점과 높이에서 구체적인 실정에 맞게 해명해야 한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통일전선전략을 높은 단계와 낮은 단계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낮은 단계의 통일전선이라는 것은 6.15공동선언을 실현하기 위한 남측 지역의 통일전선을 말한다. 이것을 지역통일전선이라고 부른다. 지역통일전선은 민족통일전선의 일부분이다. 남측에서 지역통일전선이 구축되어야 전민족적인 범위에서 민족통일전선이 구축될 수 있다. 6.15공동선언을 실현하기 위한 남측 지역의 통일전선은 남측 민족민주전선이 주동적으로 이끌어 가는 지역통일전선이다.

그렇다면 민족민주전선은 지역통일전선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이 물음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항일혁명시기에 조선민족의 통일전선운동사에 이룩된 역사적 경험에서 배워야 할 필요가 있다. 조선민족의 항일혁명의 역사적 경험은 통일전선이 승리한 역사를 증언하고 있다. 조선민족의 역사에서 통일전선의 승리를 가장 빛나게 이룩했던 역사는 조국광복회에서 찾아볼 수 있다. 조국광복회는 **김일성**주석이 항일혁명시기에 결성한 반일민족통일전선조직이었다. 조국광복회는 분산되어 있었던 민족의 반일역량을 반일자주화의 기치 아래 결집하고 조직화했던 반일민족통일전선조직이었다. 조국광복회의 투쟁사에서 우리는 네 가지 중요한 역사적 가르침을 받고 있다.

첫째는, 지역통일전선의 핵심을 세우는 문제이다. 조국광복회라는 반일민족통일전선조직을 건설하는 핵심역량은 조선인민혁명군으로부터 나왔다. 조선인민혁명군이 민족통일전선을 구축하는 사업에 힘을 기울이지 않았다면 조국광복회는 세상에 나올 수 없었다. 이것은 오늘 남측에서 지역통일전선을 구축하는 과업을 수행하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말해준다. 지역통일전선의 구축은 그 전선을 이끌어나가는 핵심역량이 존재하지 않으면 가능한 일이 아니다. 남측에서 지역통일전선을 구축하는 핵심역량은 민족민주전선이다. 그러므로 민족민주전선이 존재하지 않는 지역통일전선은 생각할 수 없으며, 민족민주전선이 든든하게 서있지 못하면 지역통일전선도 구축할 수 없게 되며 설령 구축한다고 해도 미약한 운동력이 되고 말 것이다. 민족민주전선은 남측에서 지역통일전선을 구축하는 사업에 힘을 기울여야 할 핵심으로 든든히 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둘째는, 지역통일전선의 역할을 인식하는 문제이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에게 통일전선은 반드시 요구되는 것이 아니므로 민족민주전선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데, 우리는 그러한 그릇된 관점에서 벗어나야 한다. 또한 민족민주전선과 지역통일전선을 구분하지 못하고 혼동해서도 안 된다. 남측에서 지역통일전선을 구축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관변단체, 시민단체, 종교단체들을 배제하고 자주, 민주, 통일의 강령을 따르는 세력으로 제한하려고 하는 편협한 경향은 극복되어야 한다. 지역통일전선은 민족민주전선을 그 핵심역량으로 하여 구축되는 폭넓은 전선이다. 민족민주전선은 6.15공동선언을 지지·찬동하는 세력이라면 과거를 묻지 말고 어떤 세력이라도 손잡고 통일전선의 길로 나서야 한다. 원래 통일전선운동이란 통일전선에 참여하는 상대에게서 견인·포섭해야 할 측면과 통제·봉쇄해야 할 측면을 정확히 가려보면서, 견인·포섭과 통제·봉쇄를 능숙하게 전개하는 그야말로 고도의 정치력을 발휘하는 전선운동이다. 지역통일전선 안에서 친미예속정권을 퇴진시키는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는 높은 수위의 주장을 한다든지, 민중의 계급적 이익을 배타적으로 강조하는 경향은 교정되어야 한다.

셋째는, 지역통일전선의 대상과 범위를 명확하게 파악하는 문제이다. 6.15공동선언을 반대하는 세력은 지역통일전선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런 대상은 반통일세력이므로 고립·타격하여 소멸하여야 한다. 또한 김대중정권은 북측 정치역량이 구축하고 있는 민족통일전선의 대상이므로 민족민주전선이 김대중정권을 자기의 지역통일전선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민족민주전선은 6.15공동선언을 지지하는 남측의 정당, 사회단체들을 지역통일전선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넷째는, 통일전선의 강령을 설정하는 문제이다. 지난 날 조국광복회는 반일의 기치 아래 반일역량을 결합한 반일민족통일전선조직이었다. 그런데 오늘 남측 민족민주전선은 반미의 기치를 든 지역통일전선을 구축할 수 있을까? 전민족적인 범위에서 구축되고 있는 민족통일전선은 반미자주화의 기치를 내걸지 못하였다. 김대중정권이 반미자주화를 거부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한 조건에서 남측 민족민주전선이 반미자주화운동을 전면에 배치한 지역통일전선조직을 건설하기는 힘들다. 반미자주화운동이란 미군 철거투쟁으로 전개되는 운동인데, 남측에서 미군 철거투쟁의 기치를 들었을 때 결집될 수 있는 역량은 현재 민족민주전선에 포괄되어 있는 역량으로 한정된다.

그렇다면 지역통일전선은 무엇을 자기의 강령으로 삼아야 할 것인가? 그것은 민족대단결의 강령이다. 지역통일전선은 무엇을 가지고 민족대단결을 실현할 수 있는가? 그것은 6.15공동선언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지역통일전선은 6.15공동선언을 실현하기 위한 운동력으로 존재해야 한다. 민족민주전선은 자주적 민주정부의 수립과 연방제 통일 실현을 위하여 투쟁하는 운동력으로 존재하고 있지만, 민족통일전선이나 지역통일전선은 그것을 자기의 전략목표로 받아들이기는 힘들다. 민족통일전선과 지역통일전선은 자주통일을 지향하는 세력과 화해·협력을 지향하는 세력이 6.15공동선언을 실현하기 위하여 결합된 운동력으로 존재해야 한다.

다섯째는, 지역통일전선을 조직화하는 방도의 문제이다. 항일무장투쟁시기의 조국광복회는 일제의 악랄한 탄압 속에서 반일투쟁을 벌여야 했으므로 비합법조직으로 조직되었으며 또 그렇게 활동했다. 그렇다면 지금 남측에서 지역통일전선조직을 비합법조직으로 건설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할 수는 없다. 6.15공동선언을 실현하기 위한 지역통일전선조직은 어디까지나 합법조직으로 건설되어야 한다.



90년대 통일의 대헌장

단행본 ≪**김일성**주석과 민족대단결≫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주석께서 명시하신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은 그 의미가 어디에 있는가에 의해 설명된다.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은 경애하는 **김일성**주석께서 60여성상 조국광복과 새 조국건설,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영도해오시는 과정에 빛나게 구현하여오신 민족대단결의 경륜이 집대성된 위대한 통일강령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 일찍이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날부터 민족운명개척의 주인은 우리 민족자신이라는 신념으로부터 출발하여 독창적인 민족대단결사상을 창시하시고 그것을 빛나게 구현하시여 반일민족해방투쟁시기에는 조국광복회를 창건하시고 그 10대강령을 발표하여 전민항쟁으로 조국의 광복을 이룩하시었으며 8.15 후 조국통일의 성업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의 길에서는 1948년 4월남북연석회의, 1972년 7.4남북공동성명, 1991년 남북합의서를 이루어내시여 조국통일의 앞길을 끊임없이 개척해오시었다.

김일성주석께서 내놓으신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은 바로 이러한 민족대단결 경륜의 고귀한 경험을 집대성한 불멸의 통일강령으로서 그 생명력의 견지에서 볼 때 조국광복회 10대강령에 맞먹는 의의를 가지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을 제2의 조국광복회 강령이라고 말할 수 있다.

90년대 통일을 목표로 하는 시점에서 나온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을 30년대 중반기 민족해방을 목표로 제시된 조국광복회 10대강령에 비유하는 이유는 한 마디로 말하여 두 강령이 유사한 정세배경속에서 나온 민족의 자주권 실현을 위한 민족단합의 강령이기 때문이라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제정세의 측면을 놓고 볼 때 1936년 당시에 파쑈와 민주, 전쟁과 평화, 침략과 자주의 대결이 치열하게 벌어진것처럼 오늘도 제국주의 세력과 애국적 민주세력, 전쟁과 평화, 침략과 자주의 대결이 첨예화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국내정세의 측면을 놓고보면 1936년 당시 중국본토에 대한 침략전쟁준비를 다그치던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 파쑈통치의 강화로 우리 민족이 민족으로서 존망의 기로에 서있었던 것처럼 오늘도 미제의 침략과 전쟁 정책의 강화, ≪핵의혹≫소동과 같은 반공화국압살책동으로 우리 민족이 자기 명맥을 이어가는가 못이어가는가 하는 기로에 놓여있는 것이다. 이러한 정세는 당시 노동자, 농민은 물론 청년학생, 지식인, 수공업자, 소상인과 민족자본가 등 광범한 인민대중을 조국광복의 기치아래 반일성전에 불러일으켰던 것처럼 민족대단결을 이룩하여 오늘의 난국을 헤치고 하나된 조국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여나갈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조국광복회 10대강령이 민족해방실현을 위한 강령이라면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은 조국통일이라는 또 하나의 민족해방실현을 위한 강령으로서 다같이 외세를 물리치고 민족의 자주권을 되찾기 위한 강령인 것이다.

두 강령은 또한 민족대단결을 기본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물론 조국광복회 10대강령이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단계에서 민족대단결 강령으로서 민족적 요구와 함께 계급적 요구도 안고있다면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은 조국통일이라는 민족의 자주권 실현과 관계되는 민족적 요구를 전면에 제기하고 있는 점에서 차이점을 가지지만 두 강령은 민족의 자주권 실현이라는 점에서 공통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은 통일강령을 구조적으로 완성하고 통일의 근본방도로서의 민족대단결의 원칙도 최상의 경지에서 완성한 대헌장이다.

어떤 사회적 운동에서든지 강령이라 할 때 그것은 그 운동의 총적 목표와 그 면모, 그것을 수행하는데서 나서는 원칙적 요구와 근본방도가 무엇인가를 밝힌 총체적 전략을 의미한다.

조국통일의 강령을 론할 때도 마찬가지로 말할 수 있다. 지금까지 조국통일강령선상에서 제시된 것은 조국통일 3대원칙과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과 그 10대시정방침이다. 조국통일의 3대원칙은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견지할 근본입장, 근본원칙이고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과 그 10대시정방침은 조국통일의 총적목표이고 면모라 할 수 있다.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에서는 고려민주연방공화국과 같은 범민족통일국가창립을 조국통일의 총적목표로 전민족대단결을 통일의 근본방도로 제시하고 대단결실현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에 완벽한 해명을 주었다. 이로써 조국통일강령은 총체적으로 내용면에서나 구조면에서나 완성된 것으로 발전풍부화된 것이다.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은 또한 가장 폭넓고 심도깊은 강령으로서 전민족대단결의 원칙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운 민족단합의 대강인 것이다. 민족이 있고서야 계급도 있고 계급의 이익보다 민족공동의 요구와 이익이 더 중요하다는 민족우위, 민족중시의 사상에 바탕하여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사상과 이념, 제도와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 온 민족이 단합할 데 대한 원칙을 밝히고 그 원칙을 일관하게 구현해 오신 주석께서는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을 제시하심으로써 주체적인 민족단합사상을 최상의 경지에 이르게 하신 것이었다.

10대강령은 자주적이고 평화적이며 중립적인 범민족통일국가창립이라는 각계각층의 염원과 지향에 부합되는 단결의 목표와 민족구성원 그 누구도 마다할 수 없는 민족애와 민족자주정신을 대단결의 이념적 기초로 명백히 규제함으로써 민족대단결 실현의 확고한 담보를 마련해주고 있다. 그리고 민족구성원 그 누구에게나 다 접수될 수 있는 대단결 원칙과 방도들을 제시하고 있다. 다시말하여 북과 남이 공존, 공영, 공리를 도모하고 북과 남이 일체의 정쟁을 중지하며 북침과 남침, 승고(承共)과 적화(赤化)의 위구를 다같이 가실 데 대한 방도와 북과 남이 경제소유관계가 다르지만 어느 쪽에도 물질적 손해를 주지 않도록 규제한 것을 비롯하여 북과 남에 꼭같이 이익을 주고 손해를 주는 것이 없도록 한 흠잡을 데 없는 민족대단결 강령인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10대강령은 북과 남에 존재하는 각이한 이념과 제도를 초월하여 전민족대단결의 밝은 전망을 열어놓은 민족의 단합과 통일의 대교향곡이라 할 수 있다.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은 또한 민족분단의 비극을 가시고 민족의 존엄과 번영을 확고히 담보하는 민족사적인 대헌장인 것이다.

반세기에 걸치는 민족분단으로 유구한 력사를 가진 우리 단일민족이 현 세대에 와서 둘로 갈라져 반세기동안이나 나라의 절반땅이 미제침략자들에게 짓밟히고 달나라를 오고가는 20세기 문명시대에 우리 민족만이 나라의 통일적 발전과 번영을 이룩하지 못하고 있다. 이뿐아니라 한 혈육이 생리별을 당한채 서로 오가지도 못하며 민족의 공통성마저 점차 사라질 위험에 처해있는가 하면 세계의 면전에서 동족간에 대결과 승부를 겨루는 가슴아픈 일이 지속되고 있다.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더 이상 더 원통한 일이 어데 있는가.

하루빨리 조국을 통일하여 분단으로 인하여 겪고있는 비운을 가시고 조국통일을 이룩하여 민족의 존엄을 지키고 민족의 중흥과 무궁한 번영을 이룩하여 슬기로운 민족의 위용을 만방에 떨치며 예로부터 맑은 아침의 나라, 제일강산으로 불리워온 3천리 강토에서 세세년년 만복을 누리려는 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 민족의 지상의 요청이며 숙원인다.

전민족대단결의 10대강령은 바로 우리 민족의 이러한 숙원을 풀고 오랜 역사국의 존엄과 위용을 만방에 떨칠 수 있는 대로를 열어놓은 통일대강인 것이다.

전민족 대단결 10대강령은 이렇듯 새롭게 조성된 엄중한 난국을 타개하고 민족의 통일과 장래번영의 대로를 열어놓은 90년대 통일의 기치이며 역사상 가장 폭넓고 심도있는 민족단합의 대헌장)이며 조국통일강령을 전일적인 체계와 완성된 구조의 높은 경지에 올려세운 위대한 통일대강인 것이다.

조국통일과 민족통일전선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결성 55돌에 부쳐
구국전선 7월 21일자

조국통일은 7천만 우리 겨레의 반세기여에 걸치는 비원이며 역사의 부름이다.

조국통일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우리 민족의 자주적 위업이며 당국이나 몇몇 특정한 계급, 계층의 힘만으로는 성취할 수 없는 전민족적 위업이다. 조국통일은 그 자주적 본성과 거족적 성격으로부터 남과 북, 해외를 포괄하는 전민족이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마음과 뜻을 하나로 모으고 힘을 합칠 것을 요구한다.

통일위업수행에서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중요한 것은 민족의 대단결을 이루는 것이다. 자주성이 민족의 생명이라면 그것은 전민족의 단합된 힘과 주체적인 노력에 의해 담보된다. 자주와 단결이야말로 통일의 생명선이고 통일에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다.

조국통일이 그 어느 때보다 절박한 역사의 대제로 나서고 있는 오늘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을 결성하신 역사적 공적이 갖는 중대한 의미를 다시 새겨보는 소이가 여기에 있다.

주석님께서는 지금으로부터 55년전인 주체35(1946)년 7월22일 평양에서 북조선민주주의정당, 사회단체대표자회의를 소집하시고 역사적인 보고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위원회를 결성할데 대하여≫를 진술하셨다.

경애하는 주석님께서는 보고에서 당시 조성된 복잡한 정세와 8.15후 이북에서 실시된 제반 민주개혁의 성과들을 전면적으로 분석평가하신데 기초하여 상설적인 통일전선조직체를 결성하는 목적과 필요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히시었다.

≪오늘 조선이 나아갈 길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뒤로 돌리려는 반민족적, 반인민적, 반민주주의적인 길이 아니라 우리 민족이 완전히 독립하는 길, 새로운 민주주의적 발전의 길, 역사를 앞으로 전진시키는 길입니다.(중략)

우리는 이 올바른 길을 따라 우리 민족의 역사적 숙망을 실현하여야 하며 조선의 완전한 민주주의적 자주독립을 이룩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위대한 과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민주주의적 모든 정당, 사회단체들의 튼튼한 통일단결과 그들사이의 더욱 긴밀한 협조입니다.≫

이 교시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주석님께서는 광복된 조국땅위에 통일적 민주주의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시기 위해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약칭 민전)의 결성을 발기하셨던 것이다.

민전은 이북의 모든 민주주의적 정당, 단체들을 망라하는 통일전선체의 상설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했다.

위대한 주석님께서는 그후 4월남북연석회의를 통해 남북의 제정당, 단체들사이의 연합을 실현하시고 미제와 그 주구들의 ≪단선≫,≪단정≫을 반대하는 거족적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시는 과정을 통해 남북의 애국역량을 하나로 묶어세우셨으며 그에 기초하여 민전을 남과 북의 진보적 정당, 단체들과 애국적 민중을 총망라하는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약칭 조국전선)으로 강화발전시키시었다.

조국전선의 결성은 **김일성**주석님의 민족대단결사상의 빛나는 구현이었고 민족통일전선운동에 대한 주석님의 현명한 영도의 알찬 결실이었다.

위대한 주석님께서는 일찍이 조국광복의 길에 나서신 첫 시기에 자주독립의 열쇠를 민족단신에서 찾으시고 독창적인 민족대단결사상을 천명하셨다. 그것은 민족의 생명인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기 위해 사상과 이념, 정견과 신앙의 차이, 재산의 유무와 사회적 지위에 관계없이 모든 계급, 계층이 민족공동의 요구와 이익을 첫자리에 놓고 하나로 굳게 단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주석님의 민족대단결사상이 주체사상을 민족문제에 구현하여 내놓으신 철저한 민족자주의 사상이고 숭고한 애국애족의 사상이며 가장 폭넓은 민족단합의 사상임을 말해준다.

조국전선의 결성이 갖는 중대한 역사적 의미는 주체의 민족대단결사상을 구현한 전국적 규모의 통일전선조직이 출범함으로써 민족의 자주와 단합, 통일을 바라는 남과 북의 모든 애국적 정당, 단체들과 각계각층 민중사이의 연대, 연합을 실현하며 온 겨레를 조국통일을 위한 하나의 흐름에 합류시키는 사업을 전민족적 범위에서 보다 조직적으로 힘있게 벌여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데 있다.

조국전선은 결성된 후 지난 55년동안 끊임없이 변화되는 정세발전의 요구에 상응하게 민족통일전선운동을 확대강화하며 온 겨레를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위한 투쟁에로 불러일으키는데서 커다란 공헌을 하였다.

이북에서 지난날 두 단계의 사회적 변혁과 두 차례의 복구건설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수령, 당, 대중이 일심단결된 주체의 사회주의 강국을 건설한데는 바로 주석님의 건국노선을 높이 받들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로 이북민중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헌신분투한 조국전선의 노력도 깃들어 있는 것이다. 조국전선은 특히 남과 북, 해외를 포괄하는 온 겨레를 내외분단세력의 민족분열영구화책동을 짓부수고 조국통일의 민족적 숙원을 성취하기 위한 거족적 투쟁에로 힘있게 불러일으켰다.

참으로 주석님에 의한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의 결성은 우리 민족의 통일운동사에서 획기적 의의를 가지는 역사적 사변이었다.

조국전선의 결성과 그가 걸어온 55년의 영광찬 노정은 통일전선은 민족의 단결이고 민족대단결은 곧 조국통일임을 웅변으로 실증하고 있다.

한민전의 전위투사들들과 각계 민중은 조국전선결성 55돌을 맞으며 통일의 숙원을 이루는 길도, 민족만대의 부강번영을 이룩하는 길도 통일전선에 있다는 역사적 진리와 교훈을 깊이 새기고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위한 투쟁에 더욱 분발해야 할 것이다.

정명학



주체 90, 7월 15일

각계 민중들 속에서 광폭정치로 칠천만겨레를 묶어세우시고 통일위업실현에로 현명하게 영도하시는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을 높이 칭송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한모교수는 ≪역사적인 평양상봉때에 나는 TV로 **김정일**국방위원장님의 모습을 뵙는 순간 첫눈에 아! 온 민족을 떠안으실 분은 저분이시다라고 느꼈다. 민족의 미래를 맡길 분은 바로 **김정일**국방위원장님이심을 나는 굳게 확신한다. 고 말했습니다.

기자 이모씨는 ≪**김정일**장군님께서 지니신 인정미에 큰 감동을 받았다. 그분은 참으로 칠천만 온 겨레를 한품에 안아주시는 어버이이시다. 아! 정말 절세의 애국자이시고 통일의 영수이시구나하는 탄성이 저절로 나온다. 고 했습니다.

재야인사 정모씨는 ≪그분의 정치는 겨레사랑, 민족사랑의 정치이기 때문에 지난날 반공일선에 섰던 사람들, 그리고 재벌들까지도 그분의 품을 찾는다 고 말했습니다.

기업인 박진우씨는 ≪이 세상에 **김정일**장군님처럼 너그러우시고 아량있는 분은 없다고 하면서 이것은 **김정일**영도자님의 민족대단결경륜이 낳은 또하나의 특이할 화폭이다. 이 사실을 통해서도 그분의 광폭정치, 인덕정치가 얼마나 위대하고 뜨거운 민족사랑, 겨레사랑의 정치인가를 더욱 절감하게 된다고 진심을 털어놨습니다.

민주노총은 7월 13일 오후,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대의원대회를 열고 오는 22일 3만여명을 목표로 조합원상경투쟁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민주노총은 결의문을 통해 정권의 전면적인 노동탄압에 맞서고 하반기 잘못된 구조조정과 노동법개악을 분쇄하기 위해 강력히 투쟁해나갈 것이라며 구속노동자의 석방과 검거령해제, 깡패와 구사대를 동원한 불법부당노동행위 사용주구속, 조선일보구독중단 등의 투쟁을 집중적으로 전개키로 결의했습니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는 12일 상신브레이크, 대우자동차 등 파업이 장기화되거나 구조조정과 관련한 분규가 계속되는 업체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한 연대투쟁에 들어갔습니다.

일본의 역사교과서왜곡반대투쟁이 전국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부산과 전주에서는 12일 역사왜곡규탄집회가 열리고 일본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일본과의 교류를 중단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평양방송에 따르면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 중국 친선대표단단장이 13일 귀국에 앞서 감사전문을 드렸습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서거 7주기에 즈음해 주석님의 초상사진에 꽃바구니를 증정하는 행사가 지난 6일 쿠바 **김일성**농업전문학교에서 진행됐습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서거 7돌에 즈음해 네팔의 카트만두, 요르단의 암만, 인도 데일리종합대학, 스위스에 있는 로잔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문화공보센터에서 지난 7일과 8일에 회고모임이 진행됐습니다.

지난 10일 미국방부 대변인이 미사일방어체제전개를 위한 요격시험용 시설을 알래스카에 새로 건설하려는 부시행정부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주체 90, 7월 16일

한민전 중앙위원회가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서거 7주기에 즈음한 회고행사에 관한 공보를 발표했습니다. 공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서거 7주기 회고행사에 관한 공보

주체의 영원한 태양이시며 민족의 어버이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서거 7주기를 맞으며 한민전의 각급 조직들과 애국투쟁단체들은 회고행사들을 진행하였다.

한민전의 각급 조직들에서는 7일과 8일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절절한 그리움과 한없는 경모심을 안고 위대한 수령님의 서거 7주기 회고모임들을 엄숙히 진행하였다.

회고모임 참석자들은 어버이수령님의 초상사진앞에 정중히 꽃다발을 드리고 삼가 큰 절을 올리었다.

회고모임들에서 연사들은 한민전의 전위투사들과 각계민중은 조국통일운동이 전례없이 힘차게 벌어지고 있는 장엄한 환경속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서거 7돌을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맞이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연사들은 경애하는 수령님은 위대한 사상가, 위대한 정치가, 위대한 혁명가의 빛나는 80여성상을 수놓아 오신 20세기의 태양이시라고 격조높이 강조하면서 어버이수령님께서 조국과 민족, 역사와 인류앞에 쌓아 올리신 불멸의 업적에 대하여 뜨겁게 칭송하였다.

연사들은 인류사에는 이름을 남긴 위인들이 적지 않지만 어버이수령님과 같이 위대한 사상과 탁월한 영도, 숭고한 덕망으로 20세기를 찬란히 빛내이신 천출위인을 알지 못하고 있다면서 수령님께서 열어주신 주체의 길은 백전백승의 길이며 태양으로 빛나는 수령님의 존함과 거룩하신 모습은 영원한 승리의 기치이라고 지적하였다.

연사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숭고한 뜻을 빛나게 실현해 나가시는 21세기의 태양이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계시어 역사에 처음 보는 수령영생사가 세기를 이어 장엄히 흐르고 수령님은 우리 민족과 인류의 심장속에 영생하신다고 지적하였다.

연사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세기가 교체되는 전환적 시기에 조국통일의 이정표를 마련해 주신 업적을 높이 칭송하면서 특출한 정치실력과 세계적 권위를 지니신 경애하는 장군님을 민족의 수위에 높이 모시어 어버이수령님의 생전의 염원인 조국통일은 반드시 이룩된다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회고모임 참석자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영도따라 한민전대오의 주체사상화를 가속화하고 민족공동의 통일이정표인 6.15공동선언실현을 위한 조국통일성전에 앞장서 나갈 굳은 결의를 다지었다.

한민전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은 7일 담화를 발표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20세기와 더불어 쌓아 올리신 불멸의 업적에 대하여 감회깊이 돌이켜 보면서 어버이수령님을 주체의 태양으로 영원히 받들어 모시고 경애하는 장군님의 영도따라 조국통일유훈을 새 세기의 가까운 앞날에 기필코 관철하고야 말 각계민중의 철석같은 신념과 의지를 피력하였다.

7월1일부터 15일까지의 회고기간에 한민전 각급조직들과 각계 애국투쟁단체들은 강연회, 연구토론회, 영화감상회, 회고노래모임, 도서 및 사진전 등 다양한 회고행사들을 자체실정에 걸맞게 조직진행하였다.

경향각지에서 진행된 강연회, 연구토론회, 도서 및 사진전과 ≪조선의 별≫, ≪위대한 어버이품≫,≪인민을 위한 길에 언제나 함께 계셨습니다≫영화감상회 등 행사참가자들은 한평생 민족을 위한 길에 모든 것을 다 바치신 어버이수령님의 위인상을 더욱 가슴뜨겁게 새기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서거 7주기에 즈음해 **김일성**저작연구회, 4.15동지회, 백두회, 자주회 등 각계 애국운동조직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영생과 흠모의 정을 담은 각종 유인물 살포, 회고카드 발송, 비디오시청, 인터넷홈페이지 개설, 대자보와 벽보게시를 비롯한 다양한 활동들을 의의있게 조직진행하였다.

≪구국의 소리≫방송에서는 특집방송을 진행하고 ≪구국전선≫(인터넷)은 특집을 편집하여 각계민중속에 경애하는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위인상을 깊이 심어주며 경모심을 더욱 높여 주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서거 7주기 회고행사들은 어버이수령님을 영원한 주체의 태양, 민족의 어버이로 천세만세 받들어 모시며 수령님 그대로이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영도를 충성으로 받들어 민족자주와 조국통일위업을 하루빨리 앞당겨 실현할 남녘민중의 철석같은 신념과 의지를 생동한 화폭으로 보여주었다.

한국민족민주전선중앙위원회
주체 90 (2001)년, 7월 16일
서울

울산지역 3개 시내버스회사노조가 12일 시내버스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장인 김칠순 변호사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앞에서 레미콘노조인정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미사일방어저지와 평화실현공동대책위원회는 14일 낮, 서울 용산 미8군기지 앞에서 집회를 갖고 제4차미사일요격시험규탄과 정부의 미사일방어체제불참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의 김성호, 장성*의원과 한나라당의 김원웅의원은 월 포위츠 미국방부***지난 22일 미상원군사위원회에서 북한의 재래식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해 한반도내에 공중레이저무기를 개발해 배치해야한다고 한 발언이 사실상 한반도의 미사일방어구축계획에 포함시키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라며 이는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주체 90, 7월 17일

평양방송에 따르면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 7월 16일 조선인민군 공군사령부 예술선전대의 공연을 관람하셨습니다.

각계 민중들이 주체의 군사지략과 강철의 의지, 세련된 영군술을 지니시고 빛나는 선군혁명영도의 자국을 새겨가시는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을 높이 칭송했습니다.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회원과 대우차노조원 등 500여명은 7월 14일 오후, 서울역광장에서 민주노총탄압규탄집회를 갖고 정부가 민주노총지도부에 대해 일제히 검거에 나서는 등 노동운동을 부당하게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이 조선일보구독거부운동에 나섰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과소비추방운동본부는 16일 오후, 일본의 역사왜곡을 규탄하는 전국의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 205만명의 서명서를 이한동국무총리에게 전달했습니다.

불평등한행정협정개정국민행동은 이달말 매향리미군폭격장폐쇄범국민대책위, 미군기지우리땅찾기운동본부, 전민투위남측본부 등과 함께 주한미군문제해결을 위한 연대회의를 출범시키기로 했다고 7월 14일 밝혔습니다.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은 지난 16일 성명을 내고 언론인과 언론사에 집중돼 있는 권력과 부의 부패사슬을 도려내고 언론과 언론인은 본연의 소명으로 거듭나야한다며 이를 위해 족벌언론의 유해성을 폭로하고 언론개혁의 정당성을 선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와 우리역사바로알기시민연대 등 80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일본교과서바로잡기운동본부는 16일 오후, 서울 인사동에서 일본언론에 우리 국민들의 왜곡시정노력을 알리는 광고를 내기 위한 모금운동을 벌였습니다.

일본의 역사교과서왜곡과 관련해 인도네시아 언론이 일본의 반성을 촉구해나섰습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불후의 고전적 저작 ≪우리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자 의 상세한 요지를 에티오피아 신문 ≪데일리 ** 7일자가 게재했습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서거 7주기에 즈음해 4일부터 8일까지 네팔 카트만두, 기니 코나크리, 이집트 카이라, 리비아의 그라크무르체크, 말레이시아 인터콘티넨탈회사, 지중해지역사회주의자조직상설서기국에서 이북 사진 및 도서전시회와 영화감상회들이 진행됐습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서거 7주기에 즈음해 그분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에 대한 연구토론회가 4일과 5일, 콩고 사회주의당, 우간다 캄발라고등중학교 교사들의 **김일성**주의연구소조, 기니 데리포레주 **건설기술사무소주체사상연구소조에서 진행됐습니다.

조선민중과의 국제적 연대성월간에 즈음해 6월 25일과 7월 3일 민주콩고와 기니에서 집회가 진행됐습니다.

일본역사교과서를 둘러싼 불화로 아시아지역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고 고이즈미총리아래서 일본의 군국주의가 되살아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영국주간지 ≪옵서버 가 보도했습니다.

지난 11일 일본 불교도연맹이 한 집권자에게 보낸 편지에서 오는 8월 15일에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려는 계획을 취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주체 90, 7월 18일

서울시 관악구에 사는 이모노동자가 **김정일**장군님의 위대한 사랑의 정치를 높이 칭송했습니다. 얼마전 입원한 동료에게 찾아간 그는 치료비 걱정때문에 근심에 쌓여있는 환자의 가족과 주변사람들에게 이북에서는 누구나가 병이나도 돈한푼 안들이고 치료받는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회조찬기도회는 17일 오전, 의원회관에서 **종기도회 등 4개 기독교단체와 일본역사교과서왜곡의 수정을 위한 공동 기도회를 갖고 일본정부에 교과서를 재수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지난 13일 민주노총이 조선일보의 구독거부를 선언한데 이어 전국사무금융연맹이 7월 16일 프레스센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맹산하 300여개 사업장에서 일제히 조선일보구독거부운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장인 김모변호사가 서울 여의도 국회청사앞에서 레미콘 노동자들의 노조를 인정할 것을 요구해 3일부터 단식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서울 강서구 화곡동 소재 성지중고등학교 학생 500명과 학부모 등 700명은 7월 16일 낮, 서울 종로2가 탑공공원앞에 모여 일본의 역사교과서왜곡을 규탄했습니다.

태평양전쟁때 일제에게 끌려가 사망해 야스쿠니신사에 위패가 모셔져 있는 사람들의 자녀들이 부모의 위패를 돌려달라며 한국정부와 일본정부에 탄원서를 냈습니다.

육군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용 엠16소총 두자루가 분실돼 군이 수사에 나선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서거 7주기에 즈음해 6월 29일부터 7월 6일까지 기니 통일진보당, 나이지리아 인민민주당 아브자시 아마카시오위원회, 마다가스까르 **김정일**저작연구회, 우간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친선협회 살렘 비지부, 콜롬비아 카이로주체사상연구소조, 우즈베키스탄의 조선경공업합영회사와 신우합영회사에서 강연회들이 진행됐습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서거 7주기에 즈음해 멕시코의 멕시코시, 페루 김정숙동지혁명활동연구협회, 리비아 아즈지야 지역문화회관, 말따 조선친선협회, 조선통일지지 스위스위원회에서 5일부터 7일까지 회고모임이 진행됐습니다.

2002년 태양절기념 및 2.16경축준비위원회 결성식이 5일 에티오피아 아디스 아바바 주체사상연구소조에서 진행됐습니다.

조선민중과의 국제적연대성월간에 즈음해 조선통일지지 스위스위원회에서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 유럽연합최고위급대표단을 접견하시는 사진을 모신 불레찐 ≪조선통보 를 발행했습니다.

지난 12일 중국외무부 대변인이 중국의 정상적인 국방건설을 시비해나선 일본의 방위백서를 배격했습니다.

일본 오카나와현에서 이번 국회의 참의원선거에 출마한 여러 입후보자들이 12일 주일미군지위협정개정문제와 관련해 당국을 비난했습니니

다.

도쿄에서의 보도에 따르면 환경문제에 관한 일본정부의 산하기관인 중앙환경이사회성원들이 13일 환경성에게 요청서를 제출해 당국이 지구온난화방지를 위한 교토의정서이행에 나설것을 주장했습니다.

워싱턴에서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부시행정부가 쿠바에 대한 고립압살책동을 보다 확대강화할 것을 획책하고 있습니다.

최근 리비아 국가수반 모하메르힐 가다피가 세계 여러나라들에서 이슬람교도들을 이용해 전쟁을 일으키려고 꾀하는 미국을 비난했습니다.

주체 90, 7월 19일

6.15공동선언관철을 위한 남북농민통일대회가 18일 금강산에서 진행됐습니다.

대회에는 남측에서 정광훈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전국농민회총연맹대표단, 김순옥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대표단, 북측에서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승상섭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농업근로자동맹대표단, 그리고 관계부문일군들이 참가했습니다.

또한 대회에는 남측의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6.15남북공동선언실현과 한반도평화를 위한 통일연대, 7대종단, 민주노총, 한국노총, 6.15남북공동선언실천을 위한 2001 민족공동행사추진본부 청년, 학생추진위원회 대표자들이 참가했습니다.

남북농민통일대회의 시작이 선언되자 전체 참가자들은 민족대단결가를 합창했습니다. ≪통일아, 통일아 노래선율이 울려퍼지는 속에 대형통일깃발이 서서히 게양됐습니다.

개막식에서는 축하연설들이 있었습니다.

조선농업근로자동맹대표단 단장인 승상섭위원장은 조국통일에 대한 열망을 안고 온 남녘의 농민대표들을 동포애의 정으로 열렬히 환영한다고 말하고 이번 남북농민통일대회는 북과 남의 전체 농민들이 통일실현을 위한 투쟁에서 힘찬 첫 걸음을 내딛는 뜻깊은 대회합장으로, 온 겨레를 8.15민족통일대축전장으로 부르는 서곡으로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남측의 전국농민회총연맹대표단 단장인 정광훈의장은 남북농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공동행사를 하게 된 것은 6.15남북공동선언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라면서 6.15공동선언의 정신에 따라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을 실현함으로써 통일조국을 건설해 나가자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대표단 단장인 김순옥회장은 6.15공동선언발표후 민족의 통일열망이 더욱 높아가고 있는데 언급하고 민족의 힘찬 발걸음을 가로막는 외세와 악법을 거둬내고 여성농민들도 힘을 합쳐 농업의 발전과 민족의 번영, 통일실현에 기여해나가자고 말했습니다.

대회에서는 북과 남의 사회단체들에서 보내온 축전들이 소개됐습니다.

대회통일연단에서는 토론들이 진행됐습니다.

대회에서는 남북예술인들의 축하공연이 진행됐습니다.

대회에서는 남북농민들의 다채로운 민속, 체육 및 유희오락경기가 있었습니다. 민족의 슬기가 넘쳐나는 흥겨운 농악무로 해 대회분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남북농민들이 혼합된 자주팀과 단결팀간의 경기가 시작되였습니다. 씨름과 밧줄당기기, 조국통일이어달리기 등 민속체육경기에 출전한 양팀 선수들은 경기마다에서 서로의 이해와 신뢰를 두터이할 일념을 안고 있는 힘과 지혜를 모아가며 남북농민들의 슬기와 기상을 유감없이 보여주었습니다.

양팀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보여줄때마다 군중들은 북과 징을 울려 열광적으로 환영했습니다.

경기는 자주팀과 단결팀이 1:1로 비겼습니다. 대회장에 ≪통일열차 달린다 의 경쾌한 음악이 울리자 참가자들은 서로서로 어깨를 잡고 줄을 지어달리면서 금강산이 들썩하게 노래부르고 춤을 추었습니다.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가 10일 단체상임공동대표를 비롯한 운영위원들, 각지역 실천연대성원들과 부문단체소속 성원들의 참가하에 청년김양무남북공동실천단을 결성했습니다.

최근 이땅에서 지난 6.25전쟁시기 이승만반역집단이 통치구역민중들로 편성한 국민방위군을 대량적으로 학살한 사건이 폭로되어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실탄대신 비살상레이저광선으로 상대편을 명중시키는 첨단 마일즈장비를 이용한 전술훈련이 소부대로 확대됩니다.

평양방송에 따르면 이북에서 진행된 조중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에 관한 조약체결 40돌기념행사에 참가했던 중국인민대회우호협회 및 중조우호협회 대표단 단장이 16일 귀국에 앞서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와 회견했습니다.

김정일영도자님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37돌에 즈음해 영도자님께 이탈리아 통일공산당서기장을 축전을 드렸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 드리는 편지가 네팔에서 진행된 6.15남북공동선언과 조선의 통일에 관한 아시아지역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의 열광적인 박수속에 채택됐습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불후의 고전적 저작 ≪조국통일의 위한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 의 요지를 기니 신문 코로야 지난 12일자가 게재했습니다.

주체 90, 7월 20일

최근 각계 민중들 속에서 도서 ≪민족의 앞날은 북에 있다 에 대한 독서열의가 급격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책은 자주연구학회소속 정치학교수들이 쓴 논문들을 분류정리한 것입니다.

지난 18일 금강산에서 개막된 6.15공동선언관철을 위한 남북농민통일대회가 19일에 폐막됐습니다.

폐막식에서 남측 전국농민총연맹 정광훈의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우리 민족이 하나임을 확인했다면서 우리는 통일을 가로막는 그 어떤 세력에도 굴하지 않을 것이며 국가보안법철폐와 미군철수운동을 지속적으로 벌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김순옥회장은 이번 대회과정에 오랫동안 헤어져 살아야 했던 우리가 절대로 떨어져서는 안될 한핏줄, 한형제라는 것을 가슴깊이 깨닫고 되었다고 지적하고 외세를 몰아내고 악법을 철폐하는 투쟁에 여성농민들도 함께 떨쳐나설 결의를 표명했습니다.

북측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승상섭위원장은 이번 대회는 남북농민들의 열렬한 민족애와 통일의지가 활화산처럼 타오른 화해와 단합, 통일의 광장이였다면서 남북의 농민들이 6.15공동선언의 기치를 높이 들고 온 겨레와 함께 자주적 통일의 길을 더욱 힘차게 열어나갈데 관해 강조했습니다.

대회에서는 6.15공동선언을 위한 남북농민통일대회 공동보도문이 발표되었습니다.

대회폐막이 선언되자 남북농민대표들은 ≪민족대단결가 의 노래를 부르고 통일구호들을 외치면서 공동선언의 이행을 위해 힘과 지혜를 바치고 서로 연대연합하여 온 민족의 단합된 힘을 과시할 굳은 결의를 표명했습니다.

부경총련 즉, 부산경남지역대학총학생회연합이 **** 조통위원장을 연행해간 당국을 규탄해 지난 15일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천주교계는 최근 조선일보가 천주교를 비판하는 독자투고를 잇따라 실은데 대한 **을 19일 조선일보에 게재했습니다.

천주교계는 최근 조선일보가 천주교를 비판하는 독자투고를 잇따라 실은데 대한 **을 19일 조선일보에 게재했습니다.

천주고 서울대교구 홍보실장인 정흥모신부는 19일자 조선일보독자란에 보도의 대상은 언제나 진실해야 한다는 제목의 반론을 내고 처음에는 10일과 12일, 이 신문에 실린 천주교가 친북경향을 띠고 있다, 언론사세무조사를 비호하고 있다는 독자의견은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정흥모신부는 독자들의 신문투고는 개인의 자유이나 조선일보가 독자의견란을 올바로 펴기 위해서는 글을 게재하되 좀더 신중한 자세를 가져야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일제잔재청산과 민족정기회복을 위한 민족정

기를 세우는 의원모임은 18일 일본의 역사교과서왜곡과 관련해 유엔본부에서 일본의 반인류범죄 및 역사왜곡을 알리기 위한 전시회를 추진키로 했습니다.

서울대와 연세대 등 5개 대학의 조선일보반대모임과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은 7월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안국동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조선일보를 비롯한 족벌수구언론의 청산과 신문개혁을 위해 1차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대학생들은 또 조선일보를 반대해 구독거부를 선언한 8,031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대학생들은 선언문에서 조선일보를 비롯한 족벌수구언론은 기득권세력의 이익을 대변하며 노동자들을 개량으로 내몰고 자기와 생각이 다른 **을 빨갱이로 매도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대학생들은 앞으로 조선일보절독운동과 함께 조선일보의 해악을 알리는 집회와 조선일보 2차 거부선언을 **하기로 했습니다.

제주시 신제주초등학교 어린이 269명은 19일 일본의 역사왜곡을 바로잡아 달라는 편지 269통을 제주 일본총영사관에 전달했습니다.

평양방송에 따르면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을 영생의 모습으로 높이 모신 금수산기념궁전을 찾아 19일 이북을 방문한 조총련 오형진, 리기석부의장들을 비롯한 해외동포들이 주석님께 경의를 표시했습니다.

이북을 방문한 체스코 국회대표단이 19일 혁명의 요람 만경대를 방문했다고 평양방송이 전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37돌에 즈음해 영도자님께 네팔, 인도, 폴란드, 이탈리아를 비롯한 세계 여러나라와 국제기구들에서 축전을 보냈습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서거 7주기에 즈음해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 러시아 공산주의노동자당 제1서기, 폴란드 좌익 ***위원장, 메이데이 노동자위원장이 각각 전문을 드렸습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서거 7주기에 즈음해 6월 30일과 7월 7일 러시아 모스크바, 파키스탄 파라체, 파키스탄 **김정일**장군명칭 주체사상연구전국위원회, 탄자니아 모로브르 **행정개발대학 **김일성**주의연구소조에서 그분의 업적토론회가 진행됐습니다.

지난 16일 러시아 국가회의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국가미사일방어체제를 창설하며 요격미사일제한조약을 파기하려는 미국의 기도를 비난했습니다.

일본 아사히신문 16일자가 지난 14일에 벌어진 미국의 요격미사일시험이 미국의 극단주의에 박차를 가해준 것으로 된다고 비평했습니다.

주체 90, 7월 21일

녹색연합은 19일 주한미군이 4천만평의 부지를 반환하는 대신 75만평 규모의 신규부지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미국의 요구는 한국의 안정적인 국토관리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녹색연합은 미군이 반환을 결정한 부지는 장기간 훈련장으로 사용돼 이미 심각한 환경파괴로 실용가치를 상실한 토지라며 대신 경기북부를 중심으로 신규부지를 요구한 것은 한반도의 군사기지화를 가속시키려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어민단체와 전국어민총연합회 등은 부산시에서 약 5백명이 참가한 가운데 집회를 열고 1999년에 발효된 현재의 한일어업협정의 파기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언론개혁 실천단을 발족하고 조선일보구독거부운동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산하 170개 병원에서 조선일보 구독을 중단하고 조선일보기자의 출입을 금지시키기로 했습니다. 이 단체는 또 조선일보의 모든 취재와 인터뷰 등을 거부하고 환자와 보호자들을 상대로 조선일보구독중단을 위한 선전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사무금융노조와 보건의료노조에 이어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도 조선일보구독중단운동에 나섰습니다.

민주택시연맹은 20일 서울 종묘공원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선일보가 민족정론지임을 자처하면서도 노동자들의 절박한 생존권 요구와 파업투쟁을 불법과격행동으로 매도하고 민주화운동을 국가전복행위인양 내몰고 있다고 지적하고 더이상 왜곡을 막기위해 조선일보구독중단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일보노조가 주주들이 빌려간 **급금환원 등에 관한 사측과의 협상결렬로 20일 저녁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태평양지역 미군총사령관은 19일 일본 외신기자 코라크에서 간담회를 갖고 아시아지역상공의 가장 큰 위협요소 가운데 하나가 이북이라느니 뭐니 하면서 미국은 북의 공격을 격추할 수 있도록 아시아지역방위에 계속 역점을 둘 것이라고 떠들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 이북을 방문한 체코공화국 국회대표단이 선물을 드렸다고 평양방송이 전했습니다.

평양방송에 따르면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지난 19일 생일 백돌을 맞는 ***동에서 살고 있는 ***할머니에게 백돌생일상을 보내주셨습니다.

평양방송에 따르면 이북 외무성대변인은 최근 미국이 미사일요격시험을 강행한 것과 관련해 20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대답했습니다.

대변인은 미국이 기어코 미사일방어체재수립책동에 집착하는 목적은 21세기에 다른 대국들을 정치군사적으로 억제하고 저들의 독점적 지배권을 소유하며 국내의 불리한 경제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출로를 군비증강에서 찾아보려는데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대변인은 미국이 저들의 불순한 목적을 위해 이북을 함부로 걸고드는 조건에서 이북정부는 부득불 자위적인 대응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며 이로인해 북미사이의 합의된 모든 사항이 파기된다고 해도 잃을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 드리는 편지가 우간다 캄팔라에서 진행된 위대한 수령 **김일성**수령 회고모임에서 채택됐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 드리는 전문이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서거 7주기에 즈음해 인도 **에서 진행된 회고모임에서 채택됐습니다.

지난 16일 쿠바정부가 유엔에 보낸 서한에서 미국의 반쿠바정책을 규탄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님의 서거 7주기에 즈음해 지난 6일부터 13일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조선친선협회, 영국 런던, 젤라드시주체사상연구협회, 치르기스탄의 20세기, ** **김정일**장군만세친목회에서 회고모임이 진행됐습니다.

지난 13일 러시아 외무성은 미국이 미사일방어체제창설을 위한 시험을 계속 진행하며 수개월내에 지난 72년에 체결된 요격미사일제한규약에서 탈퇴하겠다고 위협해나서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를 강력히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통일여명 (제8호)

통일여명 편집국